

#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개선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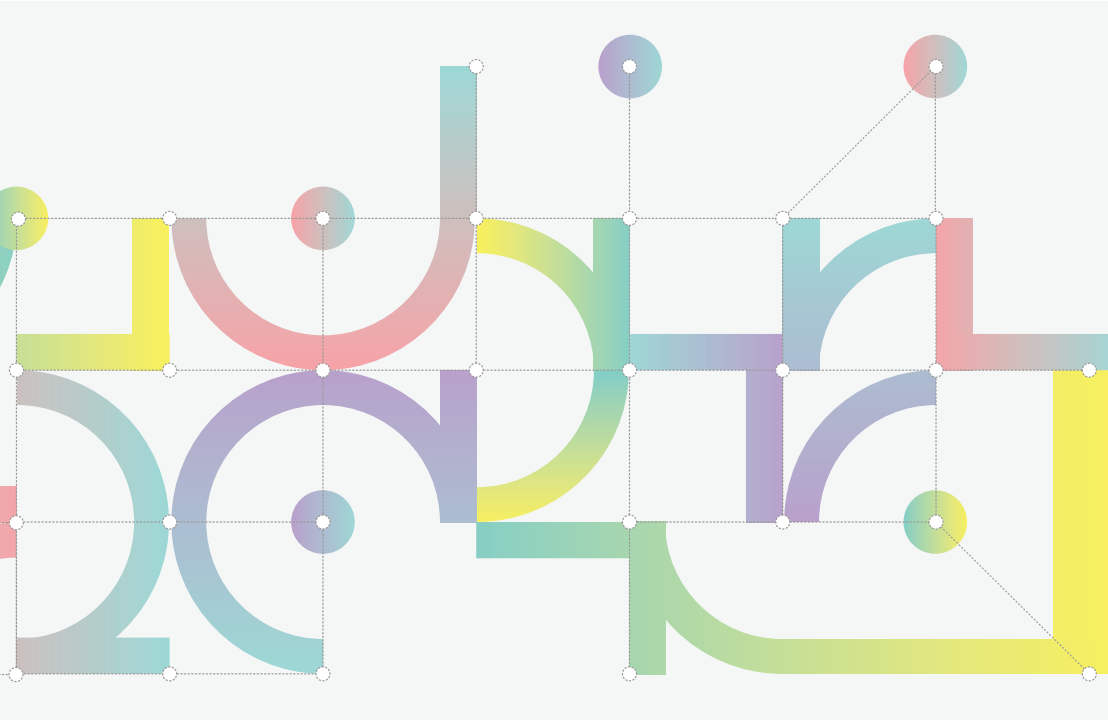
A Study on the EIU Photo Class Improvement Plan

연구책임자 **박순용**(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종훈**(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실장)

연구보조원 **채소린**(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고석영**(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IU Photo Class Improvement Plan)

연구책임자 : 박순용(연세대학교)





#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IU Photo Class Improvement Plan)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박순용(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종훈(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실장)

연구보조원: 채소린(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고석영(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본 보고서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국제이해교육 사실표 개선 방안 연구』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 제출문

본 보고서를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개선 방안 연구(A Study on the EIU Photo Class Improvement Plan)』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연구수행기관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20.10.13 - 2020.12.04

연구책임자 : 박순용(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김종훈(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실장)

연구보조원 : 채소린(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고석영(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 목차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사진의 교육적 활용가능성	5
3. 연구범위와 내용	10
가.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프로그램 아카이브 자료 검토 및 분석	11
나. 사진교실 참가자의 경험을 통한 세계시민성 및 세계시민교육의 의미 탐색	11
다. 사진을 매개체로 한 사진교실의 교육적 효과 고찰	11
라.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의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	11
4. 본 연구의 한계	12
II. 이론적 검토	13
1. 선행연구	13
가. 세계시민교육의 맥락적 이해	13
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주도하는 세계시민교육	16
2.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18
가. 연구방법: 질적사례연구	18
나. 연구질문	23
3. 연구참여자 및 연구윤리	24
가. 연구참여(심층면담) 대상자: 총 15명	24
나. 연구참여자 소개	24
다. 연구윤리 및 심층면담(인터뷰) 진행방식	25
라. 주요 면담내용	27



III. EIU 사진교실의 역사 .....	28
1. 2006 ~ 2019 아카이브 성과보고 .....	28
가. 연도별 사진교실 국가, 주제, 참여인원, 사진사례 .....	28
2. 학생모집·선발 및 사전교육 과정 .....	34
가.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참가자 선발 .....	34
나.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사전모임 .....	37
3. EIU 사진교실 보도자료 현황 .....	38
IV. 심층면담자료 분석결과 .....	56
1. EIU 사진교실 참가학생들의 경험 및 사진교실에 바라는 점 56	
가. 국내학생 사례 .....	56
1) 참가 계기: 사진에 대한 흥미와 해외 친구들과의 교류 기대 .....	56
2) 사진과 관련한 경험 및 사진으로 소통할 때의 장점 .....	59
3) 사진교실 참가 후 변화, 성장의 경험 .....	69
4) 사진교실에 바라는 점 .....	76
나. 해외학생 사례 .....	88
1) 참가 계기: 사진과 사진기술에 대한 흥미, 해외 친구들과의 소통 .....	88
2) 사진과 관련한 경험 및 사진으로 소통할 때의 장점 .....	89
3) 사진교실 참가 후 변화, 성장의 경험 .....	98
4) 사진교실에 바라는 점 .....	104
2. 사진작가 면담분석 결과 .....	110
1) 현지에서의 경험 .....	110
2) 사진교실 개선을 위한 논의안 .....	111
3. 국내외 관계자 면담분석 결과 .....	120
1) 현지 기관의 협력정도 및 현지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진교실의 운영조건들 .....	120
2) 한국과는 다른 현지국가의 인화, 전시관련 기반들, 전시회에 대한 압박 .....	123
3) 사진교실 실무자로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 .....	125
4) 사진교실의 질적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민들 .....	126
5) 국제협력업무 경험 차원에서 더 많은 직원이 사진교실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 .....	132
6) 해외관계자: 사진교실, APCEIU에 대한 무한한 지지 ..	134
<b>V.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b>	<b>136</b>
1. 연구결과 .....	136
2. 정책제언 .....	137
 참고문헌 .....	 149
부록1. 면담질문지(국내외 학생, 국내사진작가, 국내외 관계자) .....	155
부록2. 연구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국문/영문양식) .....	164



# I . 연구개요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전지구적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교육은 국가단위의 경계를 넘어 인류의 공동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설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2012년 9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제시한 ‘글로벌교육 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s)’은 ‘세계 시민성의 함양’을 강조하며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선언됨과 동시에 글로벌교육 의제로 설정되는데 동력을 부여받는 계기가 되었다(박순용·강보라, 2017).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이하 아태교육원)은 평화의 문화에 토대가 되는 방식과 가치의 개발을 통해 지식과 이해를 통합하는 교육학적 접근(pedagogical approach)을 강조하는 전문기구로서 GEFI 전과 후에 걸쳐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질적 제고와 확산을 선도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아태교육원에서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글로벌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2006년~2019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EIU Photo Class)’을 운영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청소년들이 ‘사진’을 매개로 세계시민의식 및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데 일조해왔다.

세계 인구의 60%가 공존하며 다양한 인종, 언어, 종교, 문화가

교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갈등과 경쟁의 관점에서 화합과 평화를 위한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과 같은 국가단위의 경계를 초월한 인류의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직관적으로 현실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진’이라는 매개체는 텍스트보다 영상과 이미지에 친숙한 현시대의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교육도구이자 소통방법이 될 수 있다. 사진은 누가 어떤 의도로 찍느냐에 따라 그 표현양태에서 풍기는 감성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김정민·김영철, 2009: 117). 즉 사진은 직관적인 표현의 수단이며 개인적 체험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창의성을 가지는 교육적인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즉 문화적 감성과 세계관이 결과물에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매개로 사진가의 의도나 시선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누거나 무언으로도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창작요소로서의 사진을 문화교류의 수단이자 교육적인 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태교육원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17차례에 걸쳐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이하 사진교실)을 진행한 바 있다.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장(場)을 갖는데 있어서 그 연결고리를 사진을 찍는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은 효과적인 국제이해교육의 실천적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들 수 있다. 사진은 누구에게나 흥미를 줄 수 있는 매체이자 여러 가지 시각영상 매체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매체이며, 무엇보다 가장 충실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기 때문에(정재

한, 2009: 103) 문화교류와 상호이해에 유용한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사진교실이 진행되었던 17개국은 필리핀(2006), 부탄(2007), 팔라우(2008), 라오스(2009), 방글라데시(2010), 이란(2011), 카자흐스탄(2011), 말레이시아(2012), 스리랑카(2012), 통가(2013), 인도네시아(2013), 터키(2014), 러시아(2015), 캄보디아(2016), 몽골(2017), 베트남(2018), 태국(2019)이며 매회 협력국과 한국의 중·고등학생 20-30명 내외가 사진교실에 참여해왔다. 이 밖에도, 교사와 작가 및 주최/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사진교실에 동행해왔다. 사진교실의 주요 프로그램은 ‘사진촬영 이론 및 기법 학습, 협력국 생활모습 및 문화유산 촬영, 한국-협력국 청소년 문화교류 활동,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 워크숍, 사진전 개최’ 등이 있으며, 17차례에 걸친 사진교실 활동은 협력국 및 한국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성 함양과 아태지역과 한국 간의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해왔다.

아태교육원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주요사업성과 중 하나인 사진교실의 결과물을 집대성한 사진집 “Journey to Peace through the Lens of Youth in the Asia-Pacific”(아시아-태평양의 청년들의 렌즈를 통한 평화로 가는 여정)을 발간한 바 있다. 이는 사진교실이 그동안 이룬 성과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소년들의 시선을 통해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이정표이며, 아태교육원이 평화의 문화(Culture of Peace)를 정착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사진교실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무엇보다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진교실이 걸어온 역사와 기록들을 되짚어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사진교실에 참가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학생, 작가, 주최/협력기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이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수집하고, 사진교실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취지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와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청소년 및 교육관계자들의 관점에서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의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을 토대로, 이 연구는 아태교육원이 추진해 온 사진교실의 아카이브 자료를 검토하고, 17년에 걸쳐 사진교실에 직접 참여했던 다양한 참가자들의 경험과 생각들을 수집하여, 사진교실 프로그램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진행방식과 내용이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의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사진교실의 운영주체인 아태교육원은 사진교실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내실화를 위한 정성적(질적) 분석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진교실 점검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결과는 세계시민교육의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사진의 교육적 활용가능성

사진은 세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독특한 관점이다. 말로 이루어진 언어에서 문법과 구문이 도구라면, 사진은 렌즈를 통해 창의적 에너지가 시각적 언어로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진은 사진가 개인의 경험이 담겨 있으며 이를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은 그 경험을 언제든지 다시 꺼내어 그 시점에서의 경험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진작가 안도현은 사진으로 담아내는 추억을 ‘존재의 뿌리’라고 말한다(안도현, 1998: 11). 3차원의 역동적인 상황을 2차원적인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사진은, 직접적이고 단순한 전달수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매체이며 존재를 다양한 시선을 통해 그려내는 창작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사진은 여러모로 교육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예술의 영역과 기록의 영역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진이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가 거론한 바 있다. 그 가운데 김남수(2003)의 연구가 주목할 만한데, 그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진을 감상하고 찍는 과정 자체가 교육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진이라는 매체가 언어적 속성을 지닌 까닭에 일종의 글쓰기로서 사진 찍기를 활용(김남수, 2003: 2)”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진을 통한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사진 활용교육(Literacy Through Photography; LTP)과 같이 어린이들의 감성과 지각 및 학습능력을 사진을 통해 개발시키려는 시도 또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정경열, 2009:



18). LTP는 다양한 관점을 학습자들에게 사진을 통해 이해시키면서 개인적인 삶과 자신이 포함된 사회상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와 소통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사진과 교육의 만남을 잘 드러나게 하는 이승자·허현주(2013)의 연구는 3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생들과 카메라 놀이와 학습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사진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데 매우 적극적이며, 사진에 각자의 의미와 메시지를 담아 세상과 소통하려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정작 교육학적으로 중요한 점은 바로 사진을 찍거나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이미지가 시선의 이동을 요구함으로써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진가의 사진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생각의 변형이 드러날 수 있다. 이처럼 생각의 크기에 따라 그 변형의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느낌을 가지는 사진은 그만큼 창작 수단으로서 사진의 역량을 더 많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김정민·김영철, 2009: 126). 아무리 평범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찍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온전한 창작의 과정이다. 창작의 경험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 대상을 선정하고 프레이밍하고 광량(光量)을 고려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평범한 사진조차도 순간 포착이지만 창조의 과정임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진가의 관점에서 무엇을 영구적인 이미지의 형태로 담을만한가의 문제와 어떤 풍경과 인물들을 피사체로 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 사진가의 인식적 배경과 상황적 배경에 따라 달라

질 수밖에 없다. 찍히는 피사체가 인물일 경우에는 사진가의 의식 뿐만 아니라 피사체의 의식이 함께 작용하여 더욱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김정민·김영철, 2009: 121). 따라서 사진을 감상한다는 것 또한 사진가의 시선을 공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진가가 처해있던 여러 가지 상황적 맥락을 간접경험 함으로써 사진속의 모습들을 새로이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것이다.

즉, 사진은 찍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사고와 경험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사진은 찍는 이에게도, 결과물을 보고 감상하는 이에게도 직·간접 경험을 통하여 일상의 틀을 넘는 사고(思考)를 유도하고 관점을 이동시키거나 확장시킴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창작수단이다. 사진은 이미지를 통해 사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되는 동시에 사진 속에 내재된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의 특징들을 발견하게끔 하는 인식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사진을 통해 사진가 자신이, 혹은 타인이 사진가가 몸담은 시점의 시대상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인식하게 함으로써, 일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안에 여러 모습으로 깃들어있는 ‘여기와 지금’(Here and Now)을 찾아내는 과정 또한 피사체와 피사체를 둘러싼 환경을 재발견하고 해석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고의 유연성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진의 교육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사진은 우리로 하여금 흐르는 시간 속에 순간순간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일상을 새롭게 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고 체계가 경직되지 않게 해준다. 교육이 의도된 개입을 통하여 긍정

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련의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진의 도구적 유용성은 교육학적인 논의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사진을 찍는데 있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창작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하나의 표현수단이지만 정서적 호소력을 극대화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93년 풀리처상을 수상한 사진작가 케빈 카터의 ‘수단의 굶주린 소녀’는 기아로 쓰러진 어린 소년 뒤로 날아든 독수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 한 장으로 전쟁과 기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목적의식에도 불구하고 한 장의 사진을 위해 죽음을 방치한 듯한 사진작가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2015년 터키 남서부의 보드룸(Bodrum) 해변으로 떠밀려온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아이의 주검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다. 이 사진은 난민의 참상을 그 어떤 글보다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국제적인 공분을 샀다. 이처럼 사실적인 현실을 그려내는 사진은 공개와 동시에 일어날 사회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진이 내포하는 정서적 호소력은, “기술적(記述的) 설명이나 의도가 표면에 드러나는 시각예술의 장르에서 보다 수용자의 생각에 가할 수 있는 충격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강렬한 이미지를 통한 정서적 호소에 의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진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

다. 영화가 보다 설명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전달 메시지와 수용자간 거리를 만들고, 회화의 이미지가 보다 작가 자신의 작위적 감성을 드러낸다고 평가되는데 비해, 사진은 훨씬 더 강력한 흔들림을 담보하는 비평적 역량을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민·김영철, 2009: 123-124).

의도성이 있고 없고를 차치하고 사진은 현실을 발견하는 수단인 동시에 사진가가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로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사진과 관련된 책무성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사진 찍기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초상권이나 카메라 매너 등의 일반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교육적 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사진을 통한 창작이나 표현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의무는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소지한 모든 이에게 해당한다. 즉 카메라는 상상적 창작을 실현하게 하는 도구인 동시에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해서 사진을 공공영역에서 공유하는 행위에는 중요한 책무의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사진은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바꾸는 기제이기도 하다. 시민운동, 사회비판, 정치체제에 대한 저항의 장면 등에서 발견되는 사진은 사회상을 상징적으로 압축하여 공감이나 공분을 일으키는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을 사진이 가진다는 것은 학습자가 체제지향적인 교육의 통념과 무저항적 수용에 길들여진 사고를 창발적이고 주체적인 사고

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환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다른 문화권에서 사진을 찍고 현지인들과 교감하는 사진교실은 서로 다른 시선의 만남을 보여주는 창작행위를 통해 인식의 틀을 뛰어넘는 진정한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사진을 매개로 하는 문화교류는 사진의 사실적, 심미적, 문화적 특성들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창작된 이미지에 대한 사유와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리터러시(cultural literacy)’를 고양할 수 있게 한다.

### 3. 연구범위와 내용

이 연구는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17년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사진교실 프로그램 아카이브 자료 검토 및 분석, 사진교실 참가자의 경험을 통한 세계시민성 및 세계시민교육의 의미 탐색, 사진 등 미디어를 매개체로 한 사진교실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검토를 통해 사진교실의 개선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프로그램 아카이브 자료 검토 및 분석

-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프로그램 현황을 검토 및 분석
- 아태교육원에서 발간한 온·오프라인의 이미지(사진) 및 텍스트 자료 검토

## 나. 사진교실 참가자의 경험을 통한 세계시민성 및 세계시민 교육의 의미 탐색

인터뷰 대상자를 참가 학생(국내학생 3명, 해외학생 3명), 사진작가(4명), 국내외 관계자(5명)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에 적합한 인터뷰 질문지를 반-구조화형식으로 구성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 다. 사진을 매개체로 한 사진교실의 교육적 효과 고찰

세계시민교육에서 ‘사진’을 매개체로 한 이미지 중심의 교육이 참가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참가자들이 어떻게 사진이란 매개체와 상호작용하여 세계시민성 및 문화다양성을 위한 감수성을 배양했는지 고찰해보았다.

## 라.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의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

아태교육원 안팎으로 축적된 사진교실에 관한 풍부한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사진교실의 프로그램을 분석 및 검토하고, 과거 사진교실 참가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기록화하였다. 기존 아카이브 자료 검토 및 과거 사진교실 참가자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연구에 더해져 미시적으로 사진교실의 운영과 국가별, 연도별 차이점 등을 확인하고 향후 사진교실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콘텐츠와 운영방식의 구상에 따라 재구성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내용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4. 본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비교적 짧은 50 여일의 연구기간 동안의 집중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원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진교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진행되는 현장연구가 아니라 주로 2차 자료와 면담을 통해 사진교실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견해를 들었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좋은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검증(cross-checking)만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기회가 있다면 연구참여자 샘플링(sampling)을 다변화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 II . 이론적 검토

### 1. 선행연구

#### 가. 세계시민교육의 맥락적 이해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은 지구상의 인류를 정신적인 연대를 통해 하나의 관계로 연결되어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세계시민성은 지구촌의 일원으로 인류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공생공영의 길을 모색하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며,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의도적 개입을 의미한다(박순용·강보라, 2017: 50). 세계시민교육은 근대 사회의 국민 국가 틀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시민교육을 넘어서고자 하는 곳에서 출발한다. 즉, 학습자를 수동적인 수용자로 정의하고 기성세대의 가치와 규범을 도구적으로 전수하는 근대적 교육관과 달리,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의 몸과 마음, 머리와 손의 연결을 지향한다. 이를 정리하면, 세계시민교육의 근간으로써 세계시민성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신상태'를 뜻한다(박순용, 2015).

국내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는 2012년 선포된 GEFI(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실태 및 현황에 관한 연구는 학교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영미권 중심의 이론 및 담론을 재해석하여 한국 및 아시아의 맥락에 적용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향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맥락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연구는 기존



영미권의 맥락에서 탄생한 이론에서 벗어나 현지 맥락에 기반한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박환보·조혜승, 2016; 심희정·김찬미, 2018).

UNESCO(2015)는 세계시민교육 연구를 이론 및 개념적 연구와 실천적 연구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 우선 이론적 연구는 세계시민성 및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해석 및 정의를 합의하거나, 문자 그대로 다양하게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는 세계시민교육을 다른 교육적 논의와 관련 짓거나(이경한, 2015; 최승현, 2017; 윤선인·조윤정, 2019), 세계시민교육의 성격을 분석하거나 (Andreotti, 2006; Banks, 2017), 세계시민성의 측정 척도 개발 (지은림·선광식, 2007) 및 세계시민의식 연구동향 분석(박환보·조혜승, 2016; 심희정·김찬미, 2018)등의 시도를 해왔다. 한편, 세계시민교육의 실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비해 훨씬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험' 자체에 집중한 연구보다는 세계시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과 효과성 검증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서홍란·박정란, 2014; 강혜라·홍영준, 2015; 손성일, 2016; 이은승·이성철, 2016; 김진희·김선정, 2017; 이인영 외, 2019).

한편, 교과수업 혹은 교과 외 단기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교육적 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왔다. 김다원(2015)은 다양한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삶의 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의 세계시민교육적 의의를 탐구하였다. 여행은 여행지에 대한 지리적 인식 뿐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과 교류, 현지 문화에의 감정이입, 그리고 윤리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여행은 특정 장소에 기반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 생각하고, 소통하게 한다.

세계시민교육의 유형 분류에 있어서 Andreotti(2006)는 세계시민교육은 소프트(soft) 세계시민교육과 비판적(critical) 세계시민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소프트 세계시민교육이 빈곤의 원인을 개발의 부재로 파악하고 보편적 인본주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주로 다룬다면,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은 빈곤을 정치적이고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평등한 대화의 장 속에서 개도국의 권리증진을 추구하는 참여적인 교육을 강조한다. 그런데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방침은 기존 글로벌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존의 세계질서를 완전히 바꾸려는 문제 제기나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를 이루기 위한 의도된 집단행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기본 방향인 인류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며 공생공영하기 위한 개인의 책무의식을 국가별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지구촌의 교육적 사명으로 이를 포용하게 하는 것이다. 즉 21세기 지구촌 구성원들의 상호의존성에 걸맞은 보편적이고 범세계적인 교육패러다임을 창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유네스코가 주창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한경구 외, 2015).

1.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인종, 문화, 종교, 계급 등의 차이점을 초월하는 공동의 '집단 정체성'에 기초한 태도
2. 보편적인 핵심 가치(예: 평화, 인권, 다양성, 정의, 민주주의, 차별 철폐, 관용) 및 글로벌 이슈와 경향에 대한 깊은 이해
3. 비판적, 창의적, 혁신적 사고,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지적 기능들
4. 감정이입, 상이한 관점들에 대한 열린 태도
5. 공감 또는 갈등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다양한 언어, 문화,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과 같은 비인지적 기능들
6.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에 참여하는 행동능력

## **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주도하는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2015년도부터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사업을 시작하여 공교육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위촉된 중앙선도교사는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향상하여 세계시민교육을 학교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5.3.20). 이에 관한 구체적 결과물들로는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 선생님들의 세계시민교육 이야기 나눔(APCEIU, 2016-1)”, “세계시민교육, 선생님들의 이야기: 2016년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실천사례집(APCEIU,

2016-2)”, “세계시민교육, 학교의 미래를 그리다: 2017 세계시민 교육 중앙선도교사들의 이야기 나눔(APCEIU, 2017)” 등이 있다.

실제로 2016년도에 발간된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의 게재된 한 교사의 글에는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 참가했던 학생의 사례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사진교실을 참가한 것이 학생에게 일종의 터닝포인트 경험이 되어 자신감, 도전의식 등이 생겼다고 담당 교사는 전했다.

“저희 (학교) 아이들 중에는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경험의 폭이 좁은 아이들도 많아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성적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적은데,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잠재적 역량을 발견하고 인정받게 되면서 단순히 그 활동 뿐 아니라 삶의 경험의 폭이 넓어져요. 실제로 저희학생 중 한 명은 학업 성적이 낮아서 학교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진편집기술 등이 뛰어나 단 걸 알게 되고 계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하는 사진교실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고, 터키까지 다녀오게 된 거예요. 이 아이에게 단순히 행사 참여가 아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거죠. 몇 번이나 담당교사인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지.....이 일을 계기로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도전 의식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정말 좋은 경험이지요.<sup>1)</sup>”

또한 조성준 교사는 글에서 유네스코 학교에서 유네스코 동아리

---

1)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 선생님들의 세계시민교육 이야기 나눔-조성준 선생님 글 발췌(APCEIU, 2016-1: 205)

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동아리 활동을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연계해서 진행하였고 동아리 활동을 학생 중심으로 기획하고 주도하는 활동을 지지했다고 전했다(APCEIU, 2016-1). 이를 통해 학생들이 평소 학교 안에서 유네스코 동아리 등을 통하여 세계시민교육 및 국제교류활동 등에 관심을 갖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를 꾸준히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사진교실에 참가할 경우 사진교실이 개최되는 현지에 가서 보다 확장된 경험을 하며 성장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2.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 가. 연구방법: 질적사례연구

질적연구는 첫째,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경험,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해석적인 연구이다. 둘째, 질적연구는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고, 자료가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에 관심을 갖는다. 셋째, 질적연구는 분석과 설명방법에서 복잡성, 세부사항,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피상적인 유형, 추세 및 상관관계의 묘사보다 본질적 형태의 분석과 설명을 중요시한다(Mason, 1996·김두섭 역, 1999).

곽영순(2009)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를 하는 일반적 방법이며 연구자는 개별 사례가 아니라, 특정한 사례들의 집단이나 과정들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각 사례는 복잡한 역사적, 상황적 배경을 지닌 실체이다. 사례연구의 목적은 추상적, 경험적

일반화가 아니라 주어진 사례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통하여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례연구에서 제기해야 할 질문은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이다. 연구자는 사례를 넘어선 일반화보다는 주어진 사례를 최대한 잘 이해하도록 연구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사례선정은 반드시 대표성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의 기회’이다. 사례연구의 목적은 세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표상(representation)하는 것이며, 표상된 사례가 ‘경험의 확장’에 기여하는지에 여부에 따라 사례연구의 유용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사례 연구의 가치는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후속연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복잡성과 과제를 제안하는 것에 있다(곽영순, 2009).

Creswell(2013)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특별한 사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특정 시간, 장소와 같이 일정 한도 내에 경계를 가지거나 기술될 수 있는 것으로 사례를 정의하는 중요하다. 좋은 질적 사례연구의 특징은 사례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이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과정에서 면접, 시청각 자료, 문서 등 여러 형태의 질적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례연구에서는 분석이 중요한데 좋은 사례 연구의 경우 그 사례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포함한다. 또한 Creswell(2013)은 사례연구의 절차에 관해 논하는데 첫째, 사례연구접근이 연구문제에 적합한지 결정한다. 둘째, 사례선정 단계이다. 연구 사례로는 개인, 여러 사람, 사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례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는 어떤 유형의 사례연구가 가장 연구에 유용할지 고려해야 한다. 셋째, 자료수집 단계이다. 관찰, 면담, 문서, 시청각 자료 등이 모두 사례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넷째, 자료분석의 단계이다. 자료 분석 유형은 사례 전체에 대한 총체적 분석(holistic analysis) 또는 사례의 구체적 측면에 대한 삽입된 분석(embedded analysis)이 가능하다. 자료수집을 통한 상세한 기술 후 연구자는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례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 이슈나 주제 분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다섯째, 해석의 단계이다. 연구자는 사례의 의미를 파악하고 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보고한다(Creswell, 2013·조흥식 외역, 2015).

Yin(2009)은 좋은 사례연구를 위해서는 문서정보, 기록정보, 인터뷰, 물리적 인공물 등을 자료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서정보는 편지, 메모, 이메일 교신, 일정, 노트 등과 같은 개인적 문서들이 포함될 수 있고 이에 더해 아젠다, 발표문, 행정문서, 신문기사 혹은 대중매체나 공동체 뉴스레터에 등장한 기사 등이 포함된다. 기록정보는 국가 정부기관이 작성한 통계 수치 등 열람가능한 공공자료, 지리적 특징을 나타는 지도, 도표, 특정 장소의 직원, 주민들 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수행된 자료 및 서베이 자료 등이 포함된다. 인터뷰는 사례연구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핵심적인 자료원이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첫째, 연구 목적에 맞는 일관된 질문방향을 유지해야 하며, 둘째, 대화과정에서 연구자의 질문들을 편견 없는 방식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사례연구의 인터뷰

유형은 심층면담(심화인터뷰)(In-depth interview), 집중 인터뷰(focused interview), 서베이와 같은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심층면담을 통해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의견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물리적 혹은 문화적 인공물이 사례연구의 자료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예술작품, 기술적 장치, 기타 물리적 자취들이 포함된다(Yin, 2009·신경식 외 역, 2011).

특히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수보다는 연구참여자 주체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치와 인식체계를 깊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론적인 틀로 환경과 연구참여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연구참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집합적 사례연구조사의 경우 보통 3-5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가 사례내분석 및 사례간분석 모두를 통하여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Creswell, 2013·조흥식 외 역, 2015). 질적연구에서 면담이란 구조화, 비구조화에 관계없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거될 수 있는 편견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면담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해서도 안 된다. 상호작용의 주요 요소들이 통제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심층면담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자의 윤리적 입장을 지키며 면담대상자(연구참여자)의 요구와 권리를 고려해야 하며, 면담대상자에 관한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주변상황, 경험 등을 고려해



야 한다(Mason, 1996·김두섭 역, 1999).

사례연구를 위한 수집한 자료들이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자료원을 사용하고, 수집된 자료를 재구성하고 문서화하고, 자료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Yin, 2009·신경식 외 역, 2011). 자료분석 절차와 관련해서는 연구자는 면담내용과 문화적 텍스트를 내용적, 서사적 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읽고 분석해야 한다. 우선, 면담이나 기록, 문서자료 등을 세밀하게 읽으면서 의미화하여 특정 코드, 범주를 구성해나가야 한다. 이후 자료를 계속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코드가 발견된 경우 새로운 관점에서 코딩을 시도한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주화 과정은 자료 분석의 강점이며 동시에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범주화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을 타자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인식틀과 범주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범주화의 수반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질적인 자료 해석은 구성되는 것으로서 연구자는 현장에서 수집된 현장노트와 문서로 구성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해석을 추가하며 이를 토대로 독자를 위한 텍스트를 생산해야 한다(곽영순, 2009).

이러한 질적사례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면담(Mason, 1996·김두섭 역, 1999) 형태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국내외 학생참가자와 국내 참가자의 경우 심층면담의 목적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터뷰 사전에 면담과 관련한 질문지를 연구참여

자에게 전달하였으나 이 질문지는 면담을 위한 보충자료로서 사용되었으며 면담 상황에서는 연구자 또는 연구참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험, 의견, 질문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교환되었다. 또한 문서정보, 기록정보, 인터뷰(심층면담), 물리적 인공물(사진) 등을 사례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의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심층면담 후에는 문서를 기록하고 핵심사안을 도출하여 이를 문서화 하였고 사진교실과 관련한 기존 내부, 외부의 아카이브 자료를 검토하고 재구성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자료, 기존 유네스코 사진교실과 관련된 내부, 외부의 문서 및 사진자료를 각 자료간의 연결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연구질문

- 국내외 참가학생들은 사진교실을 통하여 어떠한 경험과 성장을 하였고 향후 사진교실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 사진작가 및 국내외 관계자들은 사진교실을 운영, 협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으며 향후 사진교실의 개선방안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가?
- 심층면담 자료 및 기존 아카이브 자료를 분석하여 발견한 사진교실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3. 연구참여자 및 연구윤리

#### 가. 연구참여(심층면담) 대상자: 총 15명

-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참가학생: 총 6명(국내학생 3명, 해외학생 3명)
- 사진작가: 총 4명
- 국내외 관계자: 총 5명(국내 관계자 3명, 해외 관계자 2명)

#### 나. 연구참여자 소개

사례	사례번호 이름(가명)	성별	참가연도	참가지역
국내 학생	학생 1 (민지)	여	2019	태국
	학생 2 (영철)	남	2013	통가
	학생 3 (정훈)	남	2016	캄보디아
해외 학생	학생A (Beth)	여	2017	몽골
	학생B (Anne)	여	2013	인도네시아
	학생C (Luke)	남	2013	인도네시아

사례	사례번호 이름(가명)	성별	참가연도	참가지역
사진 작가	작가1 (이 작가)	남	2006-2013	필리핀, 부탄, 팔라우, 라오스, 방글라데시, 이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작가2 (성 작가)	남	2014-2018	터키, 러시아,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작가3 (허 작가)	남	2015-2019	러시아,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태국
	작가4 (유 작가)	여	2015-2019	러시아,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태국
국내외 관계자	관계자1	남	2016-2018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관계자2	여	2007-2008, 2012-2015	부탄, 팔라우, 스리랑카, 통가, 인도네시아, 터키, 러시아
	관계자3	여	2016	캄보디아
	관계자4	남	2016	캄보디아
	관계자5	여	2013	인도네시아

#### 다. 연구윤리 및 심층면담(인터뷰) 진행방식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설명문과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연구의 제목, 연구자 정보, 연구 목적과 절차 및 소요시간, 비밀

보장의 원칙, 중도 포기 가능성'에 대하여 면담대상자에게 사전에 전달한 후, 연구 참여에 관한 동의를 얻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해외 연구참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를 연구자가 영어로 번역하여 심층면담 이전에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여 적절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참여자가 연구 기간 중에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 및 중지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과 이에 따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은 개별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연구참여자와 총 1회 면담을 진행하였다. 매 인터뷰 당 대략적인 소요 시간은 학생의 경우 60분 내외, 사진작가, 국내외 관계자의 경우 60~9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인터뷰와 대면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국내외 학생 및 해외관계자는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 인터뷰를 하였으며 사진작가 및 국내관계자의 경우 가급적 대면면담을 진행하되, 유 작가의 경우는 본인 희망에 따라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연구자는 면담 이후 주요내용을 문서화하고 현장노트를 작성하여 핵심 아이디어와 일화를 기록하여 이후 연구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ZOOM을 활용한 인터뷰의 경우 사전에 연구참여에 관한 안

내를 이메일로 하였으며, 안내 당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연구자뿐 아니라 연구참여자 측도 가급적 카메라를 켜고 심층면담에 참여할 것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으며 이후 음성파일만 녹취 전사분석에 활용하였다.



## 라. 주요 면담내용

- EIU 사진교실 참가 학생: 참가의 의의, 전환적 경험 유무, 세계시민성 및 문화적 역량의 증진 여부, 참가자 간 상호주관적 교감, 사진을 통한 소통의 가능성 등
- 사진작가: 참가 학생들과의 경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논평, 프로그램 장단점 등
- 국내외 관계자: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방식의 변화추이, 프로그램의 기대와 기여한 바, 내세울 점과 아쉬운 점, 향후 발전계획 등

### III. EIU 사진교실의 역사

#### 1. 2006 ~ 2019 아카이브 성과보고

##### 가. 연도별 사진교실 국가, 주제, 참여인원, 사진사례<sup>2)</sup>

연도	주제	참여인원	사진사례
1차 2006	이푸가오족 어린 이가 보는 마을 풍경, 필리핀  Scenery Through the Lens of Ifugao Child	21	
2차 2007	평화와 하모니의 삶, 부탄  Peaceful and Harmonious Life of Butan	20	

2) 출처: EIU 사진교실 홈페이지

[http://photoclass.unescoapceiu.org/bbs/collection\\_archive.php](http://photoclass.unescoapceiu.org/bbs/collection_archive.php)

연도	주제	참여 인원	사진사례
3차 2008	<p>자연과 함께 사는 어린이들, 팔라우</p> <p>Children Living with Nature</p>	18	
4차 2009	<p>일상생활과 문화, 라오스</p> <p>Life and Culture of Laos Seen Through the Eyes of Children</p>	20	
5차 2010	<p>음식을 통한 삶 과 문화 탐색, 방글라데시</p> <p>Exploring Life and Culture through Our Food</p>	21	



연도	주제	참여 인원	사진사례
6차 2011	아시아의 전통시장, 이란  Traditional Markets in Asia	17	
7차 2011	일상에서의 유목민의 무늬, 카자흐스탄  Nomadic Patterns in daily life	26 (한국 5명)	
8차 2012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 말레이시아  Beauty Around Us	18 (한국 3명)	

연도	주제	참여 인원	사진사례
9차 2012	<p>다양한 색을 찾아서, 스리랑카</p> <p>Finding diverse colours of Sri Lanka</p>	23 (한국 3명)	
10차 2013	<p>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 통가</p> <p>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Tonga</p>	27 (한국 3명)	
11차 2013	<p>일상에서의 문화유산, 인도네시아</p> <p>Cultural heritage in everyday life, Indonesia</p>	25 (한국 5명)	

연도	주제	참여 인원	사진사례
12차 2014	<p>고대의 신비를 통해 발견하는 평화, 터키</p> <p>Discovering peace through ancient wonders</p>	27 (한국 6명)	
13차 2015	<p>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 러시아</p> <p>Capturing moment where past meets the present, Russia</p>	25 (한국 7명)	
14차 2016	<p>영원한 신비를 그리다, 캄보디아</p> <p>Envisioning eternal wonders behind lens, Cambodia</p>	29 (한국 8명)	

연도	주제	참여 인원	사진사례
15차 2017	<p>영원히 지속되는 다채로운 순간, 몽골</p> <p>Celebrating colorful moments that last forever</p>	27 (한국 8명)	
16차 2018	<p>빛과 색채, 그리 고 여름, 베트남</p> <p>Lights and colors: Summer of Vietnam</p>	35 (한국 15명)	
17차 2019	<p>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곳, 태국</p> <p>Harmonious life with cultural diversity, Thailand</p>	30명 (한국 13명)	

## 2. 학생모집 · 선발 및 사전교육 과정

### 가.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참가자 선발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사업은 기본적으로 아태교육원과 아태 지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혹은 교육부 간 공동 협력 사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사업 구조로 인해 사진교실 공동 주최 기관들이 2006년 필리핀 이푸가오를 시작으로 17차례 개최된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 한국 학생을 비롯한 아태지역 410여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왔다.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 참가할 협력국 현지 학생은 공동 주최 기관인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혹은 교육부에서 선발을 맡아 왔다. 아태교육원은 매년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을 공동개최 할 상대국 파트너 기관이 결정되면 사진교실에 참가할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이 있고 사진 촬영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을 가능한 여러 학교에서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25여명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요청을 받은 협력 파트너 기관은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선정한 후에 학생 명단을 사진교실 개최 전에 아태교육원에 보내주면 아태교육원은 이를 그대로 참가자로 확정해 왔다.

한국 학생의 선발은 아태교육원이 전적으로 담당해 왔다. 아태교육원은 사진교실 개최 3-4개월 전에 유네스코 협동학교, 국제이해교육 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참여 학교, 다문화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여 학교,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사업 참여 학교,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 참여 학교 등 아태교육원 사업 관련 학

교에 사진교실 참가자 추천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참가학생을 추천 받았다. 아태교육원은 관련 학교에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 아태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 사진 및 영상 촬영에 관심이 많은 학생, 국제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 음식 및 종교 등 현지 생활문화에 거부감이 없는 학생 중에서 참가 학생 후보를 선정한 후에 학생의 자기소개와 사진교실 참가 동기 및 기대가 담긴 참가신청서를 첨부한 학교장 명의의 공문을 통하여 추천하도록 했다. 그 후에 외부 전문가와 아태교육원 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생들을 선발해 왔다.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 한국 학생들이 처음부터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2006년 필리핀, 2007년 부탄, 2008년 팔라우, 2009년 라오스, 2010년 방글라데시, 그리고 2011년 이란에서 개최된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는 현지 중·고등학생들만 참가했다. 아태교육원은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이 점차 기본적인 틀을 갖게 되면서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청소년 대상 핵심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자 사진교실 예산을 증가시키고 사진교실 참가 학생 구성에 변화를 가하기 시작했다.

2011년 10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제7차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 한국 학생 5명이 참가하면서 현지 중·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열리던 사진교실에 변화가 생겼고, 비로소 체험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결합되기 시작했다. 한국 학생들의 참여로 자신들의 문화와 지역 공동체를 새롭게 발견하고 상호 문화의 가치를 배우고 존중하는 사진교실의 특성이 보다 더 강화되었고 진정한 양

자간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태교육원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사진교실에 참가할 한국 학생 선발을 위해 유네스코 협동학교 102개교와 제 2차 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참여 학교 9개교를 포함하여 총 111개교에 참가자 추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참가자를 추천받은 후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참가자를 선정했고, 한국 학생 참가에 필요한 비용은 아태교육원에서 전부 부담했다. 2012년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 그리고 2013년 통가에 개최된 사진교실에 참가하는 한국 학생들에게도 참가비를 계속해서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사진교실에서부터 한국 학생들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항공료에 상응하는 참가비를 상징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아태교육원은 2015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열린 사진교실에 참가할 한국 학생을 선발하면서부터는 상대적으로 국제활동 기회가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을 사진교실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태교육원은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에게 사진교실을 통해서 국제활동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을 접촉하여 협조를 구했다. 이때 ‘세계시민교육 도시’ 슬로건을 내걸고 있던 부산 금정구청이 선뜻 호응해 주었다. 금정구청은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의 취지에 크게 공감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국제활동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2015년 러시아, 2016년 캄보디아, 2017년 몽골, 2018년 베트남에서 개최한 사진교실에 관내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을 2명씩을 매년 추천하고 참가비를 기꺼이 부담해 주었다.

대구 수성구청은 2018년 베트남에서 열린 사진교실부터 2명씩을, CJ 나눔재단은 2019년 태국에서 개최된 사진교실에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3명을 추천하고 참가비를 부담했다. 한편, DRB 동일한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은 아니었지만 2018년 베트남에서 열린 사진교실에 참가할 학생들을 일부 추천하고, 베트남 사진교실에서 학생들이 촬영해 온 사진을 가지고 DRB 사회공헌 플랫폼 Campus D에서 아태교육원과 공동으로 ‘베트남의 빛과 색(Light and Color, Summer of Vietnam)’ 사진전을 자체 예산으로 개최하기도 했었다.

#### **나.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사전모임**


아태교육원은 출국 1-2주전에 사진교실에 참가하는 한국 학생과 사진작가를 대상으로 사진교실 참가자 사전모임을 개최하여 사진교실의 취지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들의 역할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왔다. 사진교실 참가자 사전모임은 사진교실에 대한 전반적 소개 및 세부 프로그램 안내, 방문국 이해를 위한 생활문화 특강, 문화교류 프로그램 준비 협의, 상대국 학생들에게 소개할 한국의 일상과 자신을 표현할 사진 5장 준비, 안전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





### 3. EIU 사진교실 보도자료 현황


연도	출처	보도내용
4차 2009	APCEIU 유튜브	 <p>2009 국제이해교육 사진 교실 in 라오스 조회 176회 · 2014. 12. 16.</p> <p>APCEIU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p> <p>[아이들의 라오스, 빛으로 그리다] Painted with Light: Laos Through Children's Eyes</p> <p>2009년, 라오스에서 열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의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동영상입니다.</p> <p>출처 :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N9Lh-1UKTYs">https://www.youtube.com/watch?v=N9Lh-1UKTYs</a> (2014년 12월 16일)</p>


연도	출처	보도내용
7차 2011	APCEIU	 <p>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카자흐스탄 협회연맹, 유네스코 카자흐스탄위원회, 알마티 예술디자인학교, 쉰 주레켄 공익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9일부터 14일에 걸쳐 카자흐스탄 알마티 예술디자인학교 (School of Fine Arts and Technical Design named after A. Kasteyev - UNESCO Club)에서 '제7차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을 개최했다.</p> <p>카자흐스탄 및 한국 참가학생들은 카자흐스탄 및 한국 전문 사진작가들로부터 사진촬영기법을 배운 후, 탐갈리와 이식국립공원 등에서 카자흐스탄의 고대유적과 생생한 삶의 모습들을 촬영하고, 국제이해교육 사진워크숍 및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을 통해 양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p> <p>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참가학생들과 사진작가들이 사진교실 기간동안 촬영한 사진으로 '국제이해교육 사진전시회' 개막행사를 가졌다. 사진전 개막식에는 유네스코 카자흐스탄 협회연맹 회장인 굴미라 이심바예바 카자흐스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관계인사,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언론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전시회는 2</p>


연도	출처	보도내용
		<p>주간 알마티 예술디자인학교에서 개최된 후, 카자흐스탄 내 유네스코 협회연맹 학교들에서 순회 전시된다.</p> <p>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이해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아태지역에 보급할 예정이다.</p> <p>출처: _____ :  <a href="http://www.unesco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31&amp;wr_id=462&amp;page=0&amp;page=0">http://www.unesco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31&amp;wr_id=462&amp;page=0&amp;page=0</a>  (2011년 10월 16일)</p>
8차 2012	APCEIU	 <p>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인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지난 6월 3일부터 8일까지 &lt;제8차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gt;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진교실 사업은 아태교육원, 유네스코 말레이시아위원회, 말레이시아 교육부, 말레이시아 세계문화유산청, 말라카 시청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고등학생 18명과 전문사진작가들이 참가하였다.</p> <p>학생들은 사진교실사업을 통해 사진촬영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실습을 통하여 사진촬영법을 익혔고, 국제이해교육 및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전통놀이와 음식을 비롯한 문</p>

연도	출처	보도내용
		<p>학교활동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관용과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사진교실의 마지막 순서로 열린 전시회는 세계문화유산청 갤러리에서 다뚝 위라 라디트 말라카주 문화관광장관 및 이승환 아태교육 원장을 비롯한 귀빈들과 참가학생들의 가족, 지역 언론인들이 참가하였고, 말라카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도 공개되었다.</p>  <p>전시회 개최를 통해 학생들은 문화다양성의 의의와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전시사진들은 관람객들에게 말라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시회는 말라카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지정된 기념일이 있는 다음 달까지 열릴 예정이며, 제4차 기념일 축하행사의 일부로서 소개될 예정이다.</p> <p>출처 : <a href="http://unesco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31&amp;wr_id=500&amp;page=72">http://unesco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31&amp;wr_id=500&amp;page=72</a> (2012년 6월 25일)</p>

연도	출처	보도내용
9차 2012	APCEIU	 <p>제 9차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 위치한 헥토르 코베카두와 농업연구훈련기관 (HARTI: Hector Kobbekaduwa Agrarian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에서 진행되었다.</p> <p>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유네스코 스리랑카 국가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한 이번 사진교실에는 20명의 스리랑카 학생들과 3명의 한국 고등학생들, 그리고 3명의 한국 전문 사진작가들이 참여했다.</p> <p>‘스리랑카의 다양한 빛깔 찾기’라는 주제 하에, 참여 학생들은 기본적인 사진촬영기술들을 배우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으로 유명한 갈과 캔디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스리랑카와 한국 학생들은 문화 교류 활동에 참여하여 서로의 전통 음식과 놀이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p> <p>두 나라의 학생들이 찍은 사진들은 프로그램 마지막에 12월 1일 헥토르 코베카두와 농업연구훈련기관(HARTI)에 전시되었다. 전시회는 관람객들에게 스리랑카의 풍부한 다양성과 생동감을 다시 발견하게끔 해주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p>

연도	출처	보도내용
		<p>출처 : <a href="http://www.unesco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31&amp;wr_id=535">http://www.unesco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31&amp;wr_id=535</a> (2012년 12월 5일)</p>
11차 2013	동아 일보	 <p>유네스코 자카르타서 사진 교실</p> <p>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지난달 24일부터 나흘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스와 방사 국제대(USBI·Universitas Siswa Bangsa Internasional)에서 제11차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을 열었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일상 속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사진전을 열었다.</p> <p>출처 : <a href="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202/59265062/1">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202/59265062/1</a> (2013년 12월 2일)</p>
		<p>[Feeling]인도네시아의 작은 마을, 순수함을 만났다... 지친 마음이 치유되었다</p> <p>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방법 카메라.</p>


연도	출처	보도내용
11차 2013	한겨레	 <p>파인더를 통해 종교와 언어의 벽을 허물고 사진으로 이야기하는 느낌의 시간을 가졌다.</p> <p>지난달 23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 EIU) 주최로 열린 '사진교실'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학생 25명과 양국의 사진가, 사진기자가 만났다.</p> <p>서로 카메라를 들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신비로움을 간직한 인도네시아 작은 농촌마을인 롬핀 빌리지를 방문했다.</p> <p>출처 : <a h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206/59390462/1">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206/59390462/1</a> (2013년 12월 7일)</p>

연도	출처	보도내용
12차 2014	한겨레	 <p>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EIU Photo Class)에 참가한 터키와 한국의 학생들이 지난달 27일 터키 카파도키아 우초히사르 비둘기 계곡 전망대에서 영화 &lt;스타워즈&gt;와 만화 &lt;개구쟁이 스머프&gt;의 무대가 된 카파도키아의 아름다운 풍광을 사진에 담고 있다.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은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아태지역의 청소년들이 사진매체를 통해 서로 다른 민족, 종교, 문화, 전통 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공동체 의식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2006년부터 필리핀, 라오스, 이란, 스리랑카 등에서 12회 동안 각국 학생 250여명이 참가했다. 올해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관으로 '고대유산을 통해 보는 평화'를 주제로 열렸다. 아래 작은 사진들은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터키의 시골사람들과 유적지를 직접 찍은 사진들이다.</p> <p>우초히사르/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p> <p>출처 :</p>



연도	출처	보도내용
		<a h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67547.html#csidx2ccfd6e085f4b57b7e5c7cfe9b2159e">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67547.html#csidx2ccfd6e085f4b57b7e5c7cfe9b2159e</a> (2014년 12월 4일)
13차 2015	한겨레	 <p data-bbox="384 1243 947 1482">인류 공통의 언어 ‘사진’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의 청소년들이 진한 우정을 나눴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유네스코 러시아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일대에서 연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 우리나라 청소년 7명과 러시아 청소년 18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한국과 러</p>

연도	출처	보도내용
		<p>시아의 사진가 4명에게서 사진 촬영 이론과 기법을 배워, 17세기 이후 제정러시아 시대의 문화유산이 온전히 남아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옛 레닌그라드)와 벨리키노브고로드 곳곳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p> <p>‘빛그림’(사진의 그리스어 어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시각적 느낌을 나누고 함께 고민한 두 나라 청소년들은 빛의 속도로 가까워졌다. 서로에게 놀이도 가르쳐주고 문화 유산도 소개하면서 소중한 순간을 셔터로 잘라 기억에 새겼다. 러시아 사진가 프세볼로트 코노발로스와 한국 사진가 성 작가, 허 작가 등은 이들이 나흘간 찍은 사진을 심사해 참가자 당 한점씩의 전시작을 선정했다.</p> <p>전시를 마무리한 뒤 열린 환송 자리에서 이들은 눈물을 쏟으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러시아 참가자 세르게이 드보란스키는 “내 삶의 기회였다”며 자신을 지도한 사진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 사진들은 지난 18일 아니치코프 궁전에 전시됐고, 유엔 70돌 기념행사가 열리는 모스크바에서 다시 전시될 예정이다.</p> <p>출처 : <a href="http://education.hani.com/arti/PRINT/710470.html">http://education.hani.com/arti/PRINT/710470.html</a> (2015년 9월 25일)</p>
		<p>부산 김정구(구청장 원정희)는 올해 러시아에서 열</p>

연도	출처	보도내용
13차 2015	금정 신문	 <p>린'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 참여한 한국, 러시아 학생 작품 등 총 46점을 구청 1층 구민홀에서 2016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전시한다.</p> <p>『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은 2006년에 시작되어 필리핀, 부탄, 팔라우, 라오스, 이란 등 매년 여러 국가를 순회하며 전문 사진가와 청소년들에게 사진을 통한 문화 교류의 장을 열어 주고 있다.</p> <p>10주년을 맞이해 지난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13차'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및 유네스코 러시아위원회가 주최하고 금정구 협력으로 열렸다.</p> <p>제13차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은 한국과 러시아 사진작가 6명, 한국 청소년 7명, 러시아 청소년 18명이 함께했다. 이름도 사는 곳도 나이도 배경도 각각이 었지만 사진을 매개로 시각적 고민을 나누고 표현하며 소통했다.</p> <p>31명 참여자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시선의 사진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니치코프궁전', 서울의 한옥 갤러리에서 전시되었고 이번 금정구청 구민홀 전시가 끝나면 전북 금구초등학교,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체험관 등지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p>

연도	출처	보도내용
		<p>김정구 관계자는 “매년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 관내 학생들을 참여시켜 다국적 참가자들과 교류하면서 폭넓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출처 : 금정신문(<a href="http://www.ibknews.com">http://www.ibknews.com</a>) 2016년 1월 8일, 강정인 기자 2016년 1월 8일, 강정인 기자</p>
14차 2016	APCEIU	 <p>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진행된 제14차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이 지난 10월 16일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APCEIU)이 캄보디아 교육청 소년스포츠부 (Cambodian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사진교실은 ‘렌즈를 통해 영원한 신비를 마음 속에 그려보다 (Envisioning Eternal Wonders Behind Lens)’를 주제로 10월 10일부터 6박 7일간 진행되었다.</p> <p>21명의 캄보디아 청소년들과 8명의 한국 청소년들은 3명의 전문 사진작가들과 함께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적지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 톤레삽 호수, 전통시장 등 시엠립 곳곳을 다니</p>

연도	출처	보도내용
		<p>며 사진을 촬영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진촬영 외에도 세계시민교육(GCED) 워크숍, 문화교류 프로그램, 사진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참가 학생과 작가들이 촬영한 사진 66점을 선별하여 소피텔 호텔 포키프라 볼룸(Phokeetra Ballroom)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p> <p>이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사진전에는 배기동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이사회 의장, 임 코크(Im KOCH)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스포츠투부 차관, 박승규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 시엠립분관 총영사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참가자들의 학부모 및 교사,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스포츠투부 및 시엠립교육청 직원, 캄보디아 시엠립 한인회 인사 등 현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하여 학생들이 담아낸 시엠립의 다채롭고 우아한 모습들을 감상했다. 이날 참가학생들을 대표하여 소감을 전한 신해나란 양은 “사진교실을 통해 저희는 서로의 마음에 큰 빛을 그린 것 같다”면서 “나중에 그 그림을 펼쳐보았을 때 서로가 하나된 세계시민의 모습이 그려져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소바나(Yorn Sovanna)군은 “이번에 한국 친구들과 교류하고, 세계시민교육을 접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p> <p>출처 : <a href="https://gcedclearinghouse.org/ko/news/%E2%80%9Cce-nvisioning-eternal-wonders-behind-lens%E2%80%99">https://gcedclearinghouse.org/ko/news/%E2%80%9Cce-nvisioning-eternal-wonders-behind-lens%E2%80%99</a></p>

연도	출처	보도내용
		<a href="#">D-14th-eiu-photo-class-siem-reap-cambodia</a> (2016년 10월 24일)
16차 2018	금정 신문	<p>DRB, 유네스코 국제이해사진전 ‘베트남의 빛과 색’ 개최</p> <p>(주)DRB동일은 DRB 사회공헌 플랫폼 Campus D에서 유네스코 국제이해사진전 ‘베트남의 빛과 색 (Light and Color, Summer of Vietnam)’을 개막하였다고 밝혔다.</p>  <p>국제이해사진전 ‘베트남의 빛과 색’은 DRB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함께 청소년들의 문화 정체성 형성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하였다.</p> <p>약 한달 간 진행될 해당 사진전에서는 지난 8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lt;제 16차 국제이해 사진교실&gt;에 참여하여 베트남에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린 청소년들이 그들의 순수한 눈으로 촬영해 온 총 85점의 사진작</p>

연도	출처	보도내용
		<p>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p> <p>DRB 한 관계자는 “창립 이래 꾸준히 이어온 DRB 사회공헌 사업을 보다 발전적으로 수행하고자 작년 10월 사회공헌플랫폼 Campus D를 개관하였는데, 약 1년 만에 국제기구와 함께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고, 뜻 깊다”며 “앞으로도 DRB는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전시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전시관람료는 무료다.</p> <p>한편 이번 사진전이 열리는 'Campus D'는 DRB가 창립 이래 꾸준히 이어 온 사회공헌사업을 더욱 효과적, 발전적으로 수행하고자 조성한 DRB 사회공헌 플랫폼이다. Campus D는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서, 공연장/강연장, 포럼장, 연습실 등 다채로운 공용공간은 물론 곳곳에 입주사무실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창의적,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비영리기구,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이 필요한 단체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p> <p>현재 DRB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사)더나은세상, 굿네이버스, 가온누리(공정교육사업 운영) 등 여러</p>

연도	출처	보도내용
		<p>국제기구, NGO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 국제이해 및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 및 청년들의 세계시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p> <p>그 밖에도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야구를 교육하는 ‘레인보우희망재단’, 한국 전통예술문화교육을 운영하는 ‘남산놀이마당’,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미디어교육연구소’,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드림교육센터’,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는 ‘대학생교육봉사단’, 기초·창의과학교육 기관 ‘국립부산과학관’ 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p> <p>출처 : 금정신문  <a href="http://www.ib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91">http://www.ib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91</a>  (2018년 10월 10일)</p>
17차 2019	APCEIU	<p>제17차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이 지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치앙마이 교육청과 태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사진교실은 17명의 태국 청소년들과 13명의 한국 청소년들, 그리고 한국과 태국 전문 사진작가 등이 참여하였다.</p> <p>참가자들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삶, 태국’이라는 주제로 사진작가들의 지도아래 생각을 표현하고 주변을 재조명하는 법을 배웠다. 치앙마이의 대</p>



연도	출처	보도내용
		 <p>표적인 명소인 왓 수안독(Wat Suan Dok) 사원, 반 타와이(BaanTawai) 마을, 도이 뿌이 몽족 마을(Doi Pui Hmong Village), 도이 수텡(Doi Suthep) 사원, 보 상 우산 마을(Bo Sang Umbrella Village), 치앙마이 시립 예술문화센터(Chiang Mai City Arts &amp; Cultural Centre)등을 다니며 치앙마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진촬영 외에도 세계시민교육(GECD) 및 사진 워크숍,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p> <p>참가학생들과 작가들이 촬영한 사진은 치앙마이 대학교 아트센터(Chiang Mai University Art Center)에서 사진전을 개최하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임현묵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원장, 두리야 아마타비밧 (Ms.Duriya AMATAVIVAT) 태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키타넷 폰파누чат (Mr. Kitanet PUNPANUCHAT) 치앙마이 교육청장 등 현지 관계자가 참석하여 치앙마이의 다채롭고 평화로운 모습이 담긴 작품들을 감상했다.</p> <p>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은 사진을 매개로 세계 각지</p>

연도	출처	보도내용
		<p>의 청소년들에게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06년 필리핀에서 시작한 이후, 부탄, 팔라우, 라오스, 방글라데시, 이란,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통가, 인도네시아, 터키, 러시아,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세계 각 지역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왔다.</p> <p>출처  <a href="http://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31&amp;wr_id=913">http://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31&amp;wr_id=913</a>  (2019년 10월 30일)</p>

## IV. 심층면담자료 분석결과

### 1. TIU 사진교실 참가학생들의 경험 및 사진교실에 바라는 점

#### 가. 국내학생 사례

##### 1) 참가 계기: 사진에 대한 흥미와 해외 친구들과의 교류 기대

국내 사진교실 참가학생들의 경우 사진교실에 참가하기 전부터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흥미가 있었으며 사진을 매개체로 아태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친구들과 소통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 사진교실에 참가하게 되었다.

민지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때 유네스코와 관련한 자을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친구를 통해 ‘사진교실’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사진교실에 지원하게 되었다. 사진교실에 선정된 이후 “고2이고, 내신을 챙겨야 할 시기인데 왜 이런걸 하고 있느냐”는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사진교실에 못 갈 뻔 했던 민지는 이전 태국여행 때 치앙마이에 대한 기억이 좋았기에 사진교실에 참가하기로 결심한다.

민지 : 그게 뭐지 저랑 친구랑 자을동아리로 유네스코 관련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부장이라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한 번 해 보지 않겠냐고. 솔직히 제가 글을 잘 못 쓴다고 생각해서 몰래 그냥 그때, 내신기간이기도 해서 신청서를 냈거든요. 근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 제안한 친구랑. 그래 가지고, 엄마한테 나중에 듣고 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를 하셔서... 못 갈 뻔 했어요.

영철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시절 학교 게시판에 붙은 ‘사진교실’ 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며 당시 사진에 관심이 있고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한 영철은 “**해외에서 사진을 찍는 게 흔한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진교실에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고등학교에서 “아침부터 등교해서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했던 영철은 “휴식”의 차원에서 사진교실에 지원한 측면도 있었다.

연구자 : 그럼 영철 학생은 사진교실 참여하기 전에는 통가를 간다는 걸 알고 지원한 거였어요?

영철 : 어.. 그랬을까요? 나라가 있었나 지원서에? 그거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수업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연구자 : 그럼 당시 학교 수업이 너무 힘들거나 했던 상황인가요?

영철 : 아 원래 당시는 한국 학생은 아침부터 등교해서 밤 11시까지 야자를 하던 때라 일주일 정도 쉬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구. 그게 쉽지는 않은 일정이니까요.

사진교실 지원 후 합격 통보를 받은 영철은 당시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느낌이 전국에서 3명 선발된 느낌이었던 거ですよ. 그래서 뭔가 엄청난 걸 합격한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정훈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영상 관련 전공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장래희망도 사진, 영상 등과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사진교실에 참가하게 되었다.

정훈: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다니는 선생님께서 '이런 기회가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영상을 배우는 고등학교여서, 마침 제 장래희망이 이쪽을 희망하다보니 담임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셨는데, 지원서 작성도 하고 면접도 했던 거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오래돼서, 일단은 갑작스럽게 .. 오래 준비를 한 건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사진교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급하게 준비해서 참여한 감이 없지않아 있었는데, 사실 선정이 되고 준비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진교실 가기 전까지, 사진교실 사전 과제같은 게 있었는데, 그 과제도 여유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급하게 준비를 해서 출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훈은 또한 캄보디아를 가기 전 사전과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당시의 과제가 “한국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 몇 장”을 찍어서 가져오는 것이라 전했다. 정훈은 당시 경복궁, 서울역 등에 가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을 찍었으며, 원래 사진, 영상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진로도 영상 쪽으로 고려했던 만큼 사진교실 참가 준비를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그러면 캄보디아 가기 전에 어쨌든 정훈학생도 그런 사전과제를, 한국을 소개할만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사진을 준비해갔는지 기억나나요?

정훈 : 네네. 일단 저는, **제가 집이 서울이라 아무래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경복궁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찍고 싶어서 서울역에도 가고, 바쁘게 다니는 사회인들의 모습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참가 학생들의 경우 ‘사진교실’을 참가하기 이전부터 ‘사진’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있었으며 사진교실 참가 이전부터 다양한 해외국가들을 여행 등의 목적으로 방문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특히 민지의 경우 부모님들을 따라 영국에서 2년 정도 살며 영국 현지의 학교를 다녔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 2) 사진과 관련한 경험 및 사진으로 소통할 때의 장점

### ○ ‘사진’을 매개체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이해의 과정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 참가했던 민지, 영철, 정훈 모두 ‘사진’을 통해 양국간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을 ‘사진’이란 매개체의 장점으로 뽑았다.

민지(사례1)의 경우 태국에서 ‘사진’을 찍은 이후 서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대화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민지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이, 개인이 찍은 사진이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어쨌든 가는 이유가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생각도 하면서, 배우는 그런게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솔직히, 방탄(방탄소년단) 같은 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하는데 솔직히 깊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반영이 되니까, 그걸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냥 개별적으로도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사람도 이해 할 수도 있고 태국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민지 : 친구들이 설명을 해 주거든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말해 줘요. ‘진짜 사진 측면에서 이런 게 잘 된 거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태국 친구들이 가져온 사진인 경우면,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체육대회 사진을 가져오면 더 물어볼 수 있고.

민지의 경우 태국에 간 첫날부터 태국학생들과 친해지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양국 참가자의 공통 관심사인 ‘케이팝(K-POP)’을 소재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 하지만 ‘사진’을 찍은 후 각자 찍은 사진을 갖고 서로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태국, 한국의 문화 등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진다고 전했다.

영철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할 때 말이나 글로 전달할 때 보다 사진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상대에게 보다 유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사진의 장점이라고 전했으며, 사진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 생각 등을 이해하며 “이 사람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영철: 어 ...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사진에 자신의 생각을 담는 연습을 했었어요. 일단 찍어놓고 거기에 의

미를 담기도 했지만, 그런 ... 사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솔직히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상 같은걸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사진에는 자신의 사상이 담기고 자신의 생각이 담기고, 가치관이 담기면서 이 사람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 같은 걸 지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사진이라는 게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훈 역시 '사진'이라는 매체가 “어떤 사진인지 아무런 설명 없어도” 직관적으로 사진이 던지는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사진의 장점으로 꼽았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이해교육 차원에서 '사진'으로 아태지역의 청소년들이 문화교류활동을 하는 것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훈 :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가, 굳이 언어나, 다른 걸로 설명하지 않아도 딱 보았을 때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니까. 그런 매체니까, 그런 면에서 소통하는게 사진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사진을 그냥 찍고 보여주면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무런 설명 없어도 아는 게 사진이니까.

#### ○ 사진을 통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경험

영철의 경우 사진교실에 참가하며 남태평양에 위치한 통가라는 국가에 방문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통가 사람들의 외모가 한국인과는 다르다는 것에 주목했다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사진교실’을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하게 되었다.

영철 : 일단 처음에는, 외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밝은 피부색이고, 거기는 더 어두운 편이고, 우리는 조금 왜소한데 거기는 풍채가 크고, 또 당시에 저보다 어린 학생들이 많았는데 저보다 늙어 보이는 학생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봐도 다들 형이냐고 하는데 사실 동생이고 ... 그런 게 있어서 외적으로 볼 때는 벽이 느껴지는데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를 하다보니깐, 언어적인 차이만 있을 뿐 서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같은 시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영철은 “세계시민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서로가 이렇게.. 다를 바가 없다. 서로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걸 봤을 때, 세계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는데 결국 사진을 통해 아태지역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각, 가치관, 양국의 문화 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성이 키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 사진을 찍는 시선과 관점의 차이 인식을 통한 문화다양성 경험

민지의 경우 사진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같은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도 자신만의 시선으로 사진을 찍어 그 결과물이 다른 것들을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민지는 주로 ‘사물’을 사진으로 찍었다면 다른 친구들을 ‘사람들’을 위주로 사진에 담았다고 기억했다.

민지는 본인은 태국에 가서 “태국스러운 것” 위주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는데 연구자가 “태국스러운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자 민지에게 “태국스러운 것”은 불교문화, 종교, 사원 등과 연관이 있는 것이었다.

민지 : 조그 만한 것들. 되게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것 같은데 태국스러운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국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어서, 집안마다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사찰?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막 사람들도 있고 모형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신기한 것도 위주로.

민지 : 저희는 종교가 다양하고, 그리고 서로 터치도 안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불교문화가 되게 강해서... 불교에 대한 게 ... 온다고 해야 되나? 사원 같은 것도 많고, 사람들도 집 앞에 뭐 사찰 같은 모형 같은 걸 둔다고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 거. 종교적인 게 태국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설명하기가 어렵네? 태국만의 감성이 있거든요.

민지는 ‘사진’을 통하여 “태국만의 감성”을 표현하기 원했고 이러한 사진촬영의 과정은 민지 스스로 “태국스러운 것”, “태국만의 감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촬영의 과정은 곧 민지로 하여금 태국문화에 대해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영철의 경우 통가 학생들이 “무덤”을 사진으로 찍어오는 것을 보면서 통가에서 ‘무덤’의 의미가 한국과는 다르게 보다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영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보는 시선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덤을 함부로 찍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무덤을 바로 집 옆에 두거나, 긍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덤을 찍는 학생도 있었고, 또, 저희는 신기하게 느끼는 무슨, 가방을 만드는 장면이 신기해서 막 찍는데 거긴 일상생활이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물에 집중한다든지 하는 약간의 차이는 있던 것 같아요.

연구자 : 아 근데 통가는 무덤이 긍정적인 장소로 인식되나요?

영철 : 네 집 옆에 있거나, 어디 영향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집에 무덤을 두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무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역량 중 하나가 “상이한 관점들에 대한 열린 태도”(한경구 외, 2015)인데 ‘사진교실’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아태지역 참가자들과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교류하며 문화다양성, 문화적 차이 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적 감수성을 배양하고 있었다.

#### ○ 사진교실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현지의 모습, 공존에 대한 고민들

사실 민지는 중학생 때 태국을 여행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그 당시 치앙마이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어 ‘사진교실’을 통해 두 번째로 방문한 치앙마이에서는 태국의 새로운 모습을 접하게 되었다.

민지 : 편견이라기보다는, 제가 치앙마이 갔었다고 했잖아요.  
이 때는 애들하고...

연구자 : 그 때는 몇 살 때 갔어요?

민지 : 중1 때요. 그 때는 시내 쪽에 있어서 그냥 저 태국스럽  
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변화가였던 말이에요? **이번에 갔던 호  
텔은 옆에 되게 빈민가까지는 아닌데, 그런 동네가 있었어서.  
그런 델 가보고, 태국에 이런 게 있었구나 느꼈어요.**

연구자 : 태국의 새로운 면을 봤구나.

민지 : 네. 방콕 갔을 때는 높은 건물도 보고 그랬는데.. 신기  
했던 것 같아요.

민지의 경험을 통해 같은 치앙마이를 방문해도 시기와 방문한  
지역, 체류하는 숙소 등에 따라서 해당 국가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면담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사진교실’을 통해 아태지역을 방문할 경우 보다  
현지화 된 지역, ‘로컬’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가서 현지인들  
의 일상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영철의 경우 통가에 가서 자신이 찍은 사진과 사진에 담았던 의  
미에 대해 아직 기억하고 있었으며 사진 전시를 하기 전에 ‘품평  
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친구들이 찍은 사진에 대한 메시지를 전  
해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은 자연과 도시를 대비하는  
사진을 찍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영철 : 저는 도시에 살던 사람이... 통가는 자연이 잘 발달된

나라거든요. 자연으로 와서, 자연을 많이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사진 주제도 2장을 했는데 하나는 자연을 담았고 하나는 도시 비슷한 사진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도시의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런 .. 그랬습니다.

영철은 사진교실 참가 당시 ‘**결국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결국 영철은 통가를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통가 학생들과 교류하는 동안 도시로 대표되는 지역들과 자연으로 대표되는 지역들 간의 “공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세계가 ‘**상호연결**’ 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 ○ 사진전시회를 할 때의 “뭉클”, “뿌듯” 했던 경험들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사진교실 말미에 진행되는 ‘전시회’에 대한 기억을 저마다 간직하고 있었는데 민지의 경우 전시회에 가서 직접 자신들의 사진을 보았을 때 “뭉클” 했다고 회상했다.

민지 : 근데 되게..친구들의 사진을..그러니까 조에서는 그래도 서로 볼 기회가 있는데 전체 학생들의 사진을 본 적이 없어서... **그 때(전시회 때)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거 그때 되게.. 뭉클하다고 해야 되나**

연구자 : 어떤 의미에서 좀 그랬던 거 같아요?

민지 : 이때까지 우리 같이 갔었던 곳을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

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식견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볼수 있구나 하고, 쪽 보면서 우리 추억들이 생각나니까. 정리하는 측면에서 되게...

연구자 : 봤던 사진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나 기억에 남는 이미지가 있어요?

민지 : 그 친구가 찍은 사진 중에, 남자아이 두 명이 물속에서 공 가지고 노는.. 되게 해맑게.. 그걸 제가 봤어요. 친구랑 같이 거기 갔었는데, 그걸 되게 잘 찍어서.. 그 사진이 색깔도 예뻐고.. 뭐라 하지? 사진이... 으음...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영철의 경우, 유명 사진작가가 “개인전”을 하듯이 “전시회라는 걸 해보는 느낌” 자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시회에서 여러 친구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교류하는 과정이 영철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왔다.

영철 : 네. 전시회.. 학교 강당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장관님이 가 높으신 분이 왔다고 들어가서 그 높으신 분 앞에서 한국 학생들에 영어를 가장 잘했던 형이 설명도 하고, 통가측 학생도 설명하고 했었어요. 다른 거 보니까 전시관을 빌려서 멋지게 한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소소하게 강당에서, 자그마하게 했는데.. 손님도 많이 오시고 했어요.

연구자 : 아하. 어쨌든 학생들이 찍은 사진을 그때 다 볼 수 있었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영철 : 일단 제 느낌은, 뭔가.. 전시회라는 걸 해보는 느낌이 좋았어요. 엄청 유명한 사진작가나 이런 분들이 개인전 하잖아요. 이걸 단체긴 하지만 사진을 걸어놓고 전시를 한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좋았고, 다른 학생들 사진을 보면 당시에는 각자의 의미가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고 하면서 '대단하다'

하고, '너의 생각이 참 좋다'고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정훈은 짧은 기간 안에 “전시회”를 열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재학당시 영상 관련을 전공하고 있었고 대학에 가서도 영상연출을 전공하는 정훈의 경우 사진 기술과 전시에 대한 ‘질적 기준’이 다른 참가학생보다는 높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훈에게 사진교실에서 사진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점, 전시회가 사진작가 위주로 준비됐던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다.

정훈 : 어어... 일단은, 같은 짧은 기간 안에 뭔가를 찍어냈다는. 어쨌든 전시회를 연 거니까 그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었고. 사실 저는 그 사진전 하는 날 제가 그래도 영상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일주일동안의 기록들을 다 영상으로 찍고, 당일 날 틀어야 했기 때문에 밤새 편집을 하고 그 사진전에 간 상태였기 때문에 생생히 남아있지는 않는데... 뿌듯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뭔가 사진? 사진전을 열기는 했어도 뭔가 저희를 할 수 있었던 행사가 아니라 그냥,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런 선에서 끝나는 느낌이라, 전시회라기보다는 간단한 발표회 정도의 행사였던 것 같아요.**

연구자 : 이게 약간 사진전 준비 자체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지.. 한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네요.

정훈 : 네. 학생들 중심이 아녘던 것 같고, 행사, 사진전을 연 장소 자체도 약간 뭔가 일반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저희 숙소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호텔 세미나실 같은 곳에서 연 행사라, 방문해주시는 분들을 봐도 일반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그 지역의 정치인, 방송사, 그 정도 선에서 했던 것 같아서. 보여주기식 같았어요. 한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연구자 : 그러면 정훈학생이 생각하기에는 전시회가 좀 더 일반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훈 : 그쵸. 너무 국한되어있으니까.

### 3) 사진교실 참가 후 변화, 성장의 경험

#### ○ 아태지역 학생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환대, 배려의 추억들

이번 면담에 참여했던 국내 학생들의 경우 사진교실에 참가하기 이전부터 사진과 아태지역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또한 영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들이었던 만큼 사진교실에 참가할 때부터 ‘열린 마음’으로 아태지역에 방문하여 현지친구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던 것으로 보였다. 민지의 경우 ‘케이팝’을 소재로 태국친구들과 공통화제거리를 찾으려는 모습에서 상호교류 측면의 적극성을 띄었다.

민지 : 첫 날에,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친해져야 되니까 뭐, 뭐 좋아하냐.. 오만 것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다가 케이팝을 되게 좋아하는 여자애들이었어요. 케이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연구자 : 누구 좋아한대요?

민지 : 방탄(소년단) 좋아한대요. (웃음) 한 명은 세븐틴 좋아하고. 근데 저도 방탄을 꽤 좋아해서 그렇게 얘기하다 친해졌어요.



그리고 상대국가 학생들과 친해지려는 모습은 비단 한국 참가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현지 학생들 역시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영철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영철은 자신이 통가를 방문했을 때 “영어를 더듬더듬” 했지만 다들 잘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으며 “많은 환대”를 받았다고 회상했다.

연구자 : 그럼 통가학생이 20명이면 소통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친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철 : 소통을 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를 거기에서 임의대로 짜고, 한 곳에 한 명씩 들어가서 각자 친해지고 노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마지막에는 장기자랑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애초에 그 쪽 친구들이,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 같아요. 열린 마음이 있어서 저희를, .. **저 말고 다른 두 명은 엄청 영어를 잘 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 친구들? 사람들이어가지고, 다 .. 소통이 잘 되는데 저는 영어를 더듬더듬했거든요.** 근데도 잘 이해 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환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진교실 참가자들은 7-10일 남짓의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이동하는 과정, 찍은 사진을 소재로 대화를 하는 과정, 레크레이션 과정 등을 통해 단기간 동안 친밀하게 가까워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결국 사진교실이 끝나고 양국의 학생들이 헤어질 때는 이별이 아쉬워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민지 : 근데 사실 저는… 치앙마이를 한 번 가봤거든요. 그리고 제 첫 해외여행도 태국이었어요. 간 데가 태국 밖에 없어서. 근데 치앙마이에 갔을 때 제 기억이, 되게 따뜻하고, 사람들이 정말 착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친구들은 직접 만나서 얘기, 소통도 해보고 하는 거니까 좋겠다”. 근데 직접 태국 친구들까지 만나서, 친해져서, 마지막 날에 하루 종일 같이 울고 막 이러니까 … 그래서 애정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정훈: 저희는 캄보디아 친구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놀기도 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마지막 날에는 헤어질 때 다 같이 울고 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 오호. 어떤 걸 하면서 결정적으로 좀 서먹하다가 친해졌던,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을까요?

정훈 : 근데 이게 막 어떤 특정 프로그램으로 친해졌다기보다는, 음 … 일단은 오래 붙어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쉬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나름 레크레이션 시간 같은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친해지게 된 계기가.. SNS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SNS친구 걸고, 밤에 서로가 헤어진 시간에는 메신저나 이런 걸로 서로 이야기하고 이래서. 아무래도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앞서 정훈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진교실 참가기간동안 양국의 참가학생들은 SNS를 통해 ‘친구 맺기’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교류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급속도로 친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민지(학생1)의 경우에도 사진교실에 참가한 친구들이 사진교실에서 찍은 사진을 “일부러 말을 안 해도, 찍은 당일에 알아서 올려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올리고”라고 전했다. 이처럼 사진교실에 참여

한지 몇 년이 지난 지금, 국내 참가학생들은 사진교실에서 만났던 현지 친구들에 대한 근황을 SNS를 통해 알고 있는 정도이지만 사진교실 참가 당시에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넘나들며 급속도로 친해지는 시간을 경험을 하였다.

민지는 당시 뻘뻘한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을 잠시 멈추고 사진교실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 지금까지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태국 학생들과 나누는 “정”을 생각하면 “힘들 때마다 힐링”이 된다고 전했다.

민지: 태국친구들이 되게 정이 많아서, 정이 많다는 게, 사람 자체도 되게 챙겨주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마지막에 선물을 엄청 준비를 한 거예요. 정성을 담아서 그림도 그려 주고. 그 때 받았던 정. 힘들 때마다 힐링이 돼요. 어 진짜로 힘들 때마다 그런 게 생기면, 바뀌었다기보다는 기억 자체가 되게 힘이 된 것 같아요.

민지 : 태국 사람들이 되게 따뜻하고, 되게 천천히 하고 .. 저는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힐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한국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깐, 그게 현실이잖아요.. 되게 .. 막막했어요. 항상 그렇게 살아 왔고... 바뀌었다기보다는, 태국사람들한테서 조금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이런 따뜻한 정을 언제...

○ **한국의 교육제도에 관해 성찰하게 되는 경험들,  
현지 학교에 대한 호기심**

연구참가자들의 경우, 사진교실에 참가할 당시 ‘고등학생’ 신분

으로 태국, 통가, 캄보디아 지역을 방문한 만큼 현지의 학교와 교육 및 현지 학생들의 생활상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사진교실을 통해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지 학생과 한국 학생, 현지의 교육문화와 한국의 교육문화 사이의 차이들을 발견해 내기도 하였다.

민지의 경우 사진교실에서 ‘사진’을 주제로 양국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태국 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한국 학생들의 생각이 주로 비슷한 측면에 대해 이를 한국의 획일화된 교육과 연관시켜 자신의 생각을 전하였다.

연구자 : 음. 그럼 어쨌든 사면 한국학생들도, 사실 다양하고 사는 지역이나 연령도 다양했고 태국 학생들도 다 다양했잖아요. 같이 모였을 때 좀 되게 문화적으로 다양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민지: 한국 친구들끼리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다들 비슷해요... 태국친구들은, 음. 혼혈이 좀 있었어서, 태국에는 혼혈이 많은 가봐요. 그래서 살짝 말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이 되게 다양했어요. 아 이게 그래도 좀 비슷하거든요 한국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때까지 획일화된 교육을 받았잖아요. 말하는 것도 되게, 되게 비슷한데 태국친구들은 자유롭게 많고 혼혈도 많고 하니까, 자기 생각표현을 되게 잘 했어요. 좋아하는 분야도 다양해서 음악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고.

영철의 경우, 사진교실에 지원할 당시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고된 고등학교 생활에서 잠시 “휴식”을 얻고자 한 측면이

있었는데 통가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교육제도와 통가 교육제도의 차이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연구자 : 네 그리고 실제로 가본 곳도 아니고... 그럼 통가의 학교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 볼 기회가 있었나요?

영철 : 아! 저희보다는.. 다른 외국 학교가 그렇듯, 저희보단 수업시간이 짧더라고요. 아침에 가서 오후 3시면 끝나는데 대신 액티비티, 서핑이라든지 렉비를 하는 시간이 있다고 들어서 '좋다. 우리는 아침 6시에 가서 밤 11시에 온다'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냐고.. 그런걸 좀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영철은 또한 “거기(통가) 학생은 정말 필요한 것만 배우고 나오니까, 그리고 각자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이처럼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사진교실’에 참가하는 국내 참가학생들의 경우 현지 학생들의 학교문화, 교육제도 등에 관심을 보였으며 ‘사진교실에서 현지 학교 등을 방문하면 어떨 것 같은가?’에 관한 연구자의 질문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철의 경우 대학생이 되어 뉴질랜드의 신학교에 방문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경험이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새로운 관점”을 갖는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연구자 : 어쨌든 학생 신분으로 가는 거니까, 현지 학생들의

생활을 체험해보는 것도 문화감수성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철 : 네. 접하면 접할수록 얻어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연구자 : 음 그러면 뉴질랜드 신학교에 가니까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었어요?

영철 : 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한국만의 전통적인 신학적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도 뉴질랜드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보니까 신학적 관점이 달라서 교리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관점도 있구나 하는걸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제한적인데, 여기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지게 해주더라고요.**

민지의 경우는 사진교실 참가당시 대학 전공으로 ‘교육학’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서 학교에 대해 궁금한 상황이었었는데 ‘레크레이션’ 시간에 한국, 태국 친구들이 사전에 준비해 온 사진을 갖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태국의 학교에 관해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시간이 좋았다고 전했다.

**민지: 레크레이션 시간에 한국 친구들이랑 태국 친구들이랑 서로 사진을 가져와요. 사진을 보여 주면서, 한국의 어떤 부분을 소개 하고 싶고...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저는 어쨌든 태국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되게 태국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랑 직접 가서 그 친구들의 입장이 되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런 걸 보는 것도 되게 새로웠거든요. 저는 그때 교육학 과를 가고 싶어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했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 봤어요. 친구들**

이 설명을 해 주는데 근데 사진을 보는거랑 직접 보는거랑 또 다른 느낌인 거예요.

정훈의 경우는 면담 과정에서 보다 ‘현지화’되고, ‘일상적’인 캄보디아를 방문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캄보디아사람들이 사는 집, 학교 등 “생활감”이 묻어 있는 공간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면, 사진교실의 질적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연구자: 그러면, 만약에 정훈학생이 개인적으로 거기(캄보디아)에 갔다면, 어디를 방문, 어느 공간을 방문해서 찍었을 것 같아요?

정훈 : 으음. 캄보디아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생활감이 묻어있는 공간을 좀...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연구자 : 아무래도 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고등학생이다 보니 학교나 학교생활을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정훈 학생은 어땠어요? 그 친구들의 학교생활을 보거나 하는 게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다면 어떨 것 같을지 궁금하거든요.

정훈 : 좋을 것 같아요.

연구자 : 음. 학교.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가요? 캄보디아 친구들의.

정훈 : 일단은, 교육환경이나,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수업 방식이나, 교복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 4) 사진교실에 바라는 점

○ 보다 현지화 되고 일상적인 공간 체험에 대한 기대

참가학생들은 보다 현지화 된 곳을 방문하여 현지체험과 문화이해, 교류 등을 하기 원했으며 “태국스러운 것”, “캄보디아만의 그런 매력이나 진짜 문화”를 현지에서 느끼고 사진에 담기를 원하고 있었다.

정훈 :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캄보디아 자체가 일단 근데 그렇게 사실 뭔가 저희처럼 발달되고, 이런 국가는 아니잖아요.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국가인건데 캄보디아에 갔으면 사실 그런 문화도 좀 경험을 하고, 저희는 캄보디아의 진짜 있는 모습을 담으러 간 건데, 애초에 캄보디아에서 참여하는 학생들 자체가, 캄보디아의 일반적인 학생들이 아니라 정말 최상위층에 속하는 그런 학생들이랑 교류를 하다보니까. 그런 학생들이랑 교류하다보니까 우리와의 문화적 차이나 기술적 차이의 격차가 적어서, 저희한테는 소통하기는 편하고 그랬을 수는 있는데, 대신에 무언가 캄보디아만의 그런 매력이나 그런 진짜 문화를 느낄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럼 정훈 학생은 이 캄보디아만의 매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대했던 건 뭔가요? 캄보디아 가서 어떤 걸 보고 경험했으면, 하는 기대들이 있었던 건가요?

정훈 : 국제교류라고 하면 보통 그 나라에 홈스테이나, 그 나라를 체험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호텔 세미나 룸에서 설명 듣고, 호텔에서 밥 먹고 자고, 그리고 무슨 ... 패키지여행 가면 문화재 쓱 훑어보듯이 투어 같은 곳에 가서 사진 찍고. 이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럼 정훈학생이 기대했던 건 조금 더 로컬, 그러니까 현지와 밀접하게 다가가서 일반 사람들 살아가는 것도 보고



그걸 사진 찍고 하는 걸 기대했던 건가요?

정훈 : 그쵸 그쵸.

민지 : 그냥 사소한 거긴 한데, 끝나고 나서 식당에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되게 태국음식 이런 걸 많이 먹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왜냐면 그 나라에 갔으니까요. 근데, 메뉴 선정이 조금... 한 번은 삼겹살 먹고 한번은 휘귀 먹고... 함박스테이크 먹고 그런 거에 불만이 있었어요. 왜 이런 것만 먹으라고 하지...

참가학생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사진교실’을 통해서는 보다 ‘현지화 된 경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인 패키지여행 등에서는 방문하지 않는 사진교실만의 특화되고 현지화된 ‘코스’를 설정하여 ‘현지의 일상’을 담을 수 있는 사진을 찍고, 현지 음식, 홈스테이, 현지 학교 등을 경험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철의 경우 통가의 주식이 구황작물이었는데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먹는 것으로 고생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사진교실에서 ‘현지화’와 관련된 고민을 할 때 참가학생 및 참가지역의 상황과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철: 저 같은 경우에는... 구황작물이라고 하나요? 고구마, 감자 같은 걸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거기 주식이.. 또 암이랑 소시지, 야채 이게 식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아니 그래서 계속 힘들었어요. 그래서 점심은 잘 못 먹고 저녁은 저희끼리 먹으니까 작가님들을 위해서 한인식당을 자주 갔거든요. 그래서 저녁은 잘 먹고, 아침은 간단하게 거기 게스트

하우스에서 식사를 제공해주셔서 간단히 먹고... 그래서 나름 잘 먹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한식을 먹을 수 있고, 저녁을 저희 끼리 먹을 때에는 현지식을 먹어도 제가 원하는 걸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식사는 잘 하고 온 것 같습니다.

○ 강의식보다는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민지의 경우 사진교실에서 강의식 위주로 세계시민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친구들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전했으며, 강의식 보다는 학생 참여형 활동 또는 태국 현지를 보다 자유롭게 친구들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선호했다.

민지 : 음 우선, 제일 초반에 태국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는 큰 홀에서 소통? 같은걸 했거든요? 서로. 알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 그때는 막 설명 듣고, 그 다음날부터 조금씩 사진 찍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항상 홀에서 강의 같은 걸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진은 어떻게 찍으면 좋은지 아니면 세계시민 이해?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강의식이어서 ...

또한 민지는 “저희는 그런 것(강의) 보다는 직접 소통을 하고 싶은 거라서, 저희도 서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강의실로 딱 들어와 버리면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태국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 ‘통역’까지 진행되다 보니 참가 학생들이 세계시민관련 강의에 관한 ‘집중력’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

민지 : 한국분이 강의를 하실 때는 통역사분이 계시거든요? 말하고, 또 태국샘이 통역해주시고. 한 문장씩 번갈아가면서...

연구자 :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겠구나.

민지 : 그쵸. 집중력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진 교실이라고 해서 진짜 거의 하루 종일 사진만 찍고 활동이 주고, 어울려 다니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이러한 민지의 경험을 참고하면, 향후 사진교실 프로그램 설계시 강의보다는 학생참여형, 학생활동 중심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소통할 시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훈의 경우에는 ‘전시회’와 관련하여 “결과물 중심”이 아닌 전시회 준비 전반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정훈 : 음,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진교실인 만큼 무작정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연구자 : 네네.

정훈 : 뭔가, 마지막.. 후반에 되어서 저희가 현지에서 전시를 하고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서. 전시를 하려면 인화나 이런 걸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결과물을 보여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뭐 저희가 손을 댄다기보다 작가님들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빠르게 넘겨버리는. 결과물 중심적인 그런 ..

연구자 : 으음.

정훈 : 그런 형태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서, 뭔가 (참가확

생들과) 같이 전시를 준비해나가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기존학생들의 참가경험을 참고하면, 사진교실 시작부터 전시회까지의 전 과정에서 학생이 보다 중심이 되어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 사진기술 습득 및 사진 퀄리티에 대한 의견

이 부분은 참여 학생의 경험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지, 영철의 경우 사진교실 참가이전부터 사진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었지만 사진교실에서 ‘사진’의 의미는 ‘소통’과 ‘국제 교류’, ‘문화다양성’ 등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되는 측면이 컸다. 민지, 영철은 학생 개개인이 찍은 ‘사진’을 보며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 자체를 중시했고 이 과정을 통해 문화감수성, 세계시민성 등을 길러나가고 있었다.

정훈 역시 국제교류 활동에서 ‘사진’으로 소통할 때의 장점을 알고 있었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학생들과 친밀한 교류를 이어나갔지만 영상 전공자로서 프로그램명이 ‘사진교실’인 만큼 사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정훈 : 으음.. 일단은, 사진에 대한 교육이 일단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술적인 테크닉적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 측에서, 카메라 없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카메라를 준비해갔는데, 왜 제가 애초에 사진에 포커스 안 맞춰

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애초에 한국측에서 가져간 건 요~만한 디지털카메라였어요. 캄보디아친구들한테 준 거 자체가, 그래서 ‘애초에 사진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뭐, 수량이 부족해서 아예 휴대폰으로 찍는 친구들도 있었고. 물론.. 장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개네(캄보디아 측)도 뭔가 사진교실이면 카메라에 대해 배우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핸드폰으로 사진 잘 찍는 법은 유튜브만 봐도 다 나오니까요. 더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정훈과 달리, 영철의 경우 통가 학생들이 ‘똑딱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학생들보다 더 “멋진 사진”을 찍었다는 경험에 대해 말했다.

영철: 거기서 또 느낀 게 뭐냐면, 한국 학생들은 다 이런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근데 거기 학생들은 유네스코에서 카메라를 지급을 해주는데, 똑딱이였어요. 삼성디지털카메라. 처음에는 급 차이가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역시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고 ... 저희보다 훨씬 더 멋진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거기 사람들이 부담을 안 느끼니까 쉽게 더 가까운 곳, 세밀한 곳을 찍어오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이를 통해 사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주 목적이 ‘사진’을 매개체로 한 ‘소통’인지 아니면 ‘사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에 따라 사진교실에서 원하는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을 단순히 매개체로 생각하는 참가학생들의 경우 사진기의 기종

이나 테크닉 보다는 사진을 통한 소통, 교류를 중시하는 반면, 사진 자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참가학생들의 경우 양국 학생들간의 소통과 교류가 친밀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사진교육과 질**’이 보장되지 않아서 만족할만한 사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훈은 사진의 퀄리티를 중시하다 보니 본인이 사진교실을 진행한다면 “**현지화**” 시키는 것과 함께 양국가의 참여인원의 구성을 비슷한 숫자로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연구자: 그러면 정훈학생이 만약에 사진교실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바꿀 것 같아요?

정훈 : 음, 저는 일단 **최대한 현지화를 시킬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측에서 참여한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캄보디아 쪽은 인원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보니 한국은 6-7명 갔는데 캄보디아측은 20-30명 되니까 그 캄보디아 측 인원을 좀 줄일 것 같고요**. 그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인원이 적다 보니 멘토분들도 케어 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지고 그러면 깊은 교육이나 여러 교육을 할 때도 더 깊이 있고 심도 높은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으니까, 저는 범위를 좀 줄일 것 같아요.

#### ○ 다자국 확대 및 사진 이외 매체 활용에 관한 의견

사진교실의 참가국을 현재 양국에서 다자국으로 확대하면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자의 질문에는 영철, 정훈의 경우 다자국 확대에 찬성을 하였다. 반면 민지의 경우 현재대로 “양보단 질”적인 차원

에서 양국가의 학생들이 서로 깊이 있게 교류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또한 사진교실에서 사진이외의 매체 활용에 관해서는 영철은 사진교실에서 그림, 운동 등을 접목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데 반해, 정훈은 사진교실과 영상교실을 각각 따로 운영하는 것이 질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영철: 다른 사람이랑 어쨌든 접촉하고 비교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양자 간이 아니라 다중간의 진행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이 사진이라는 매개체가, 그냥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교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로만 했을 때에는 사진이 더 괜찮은 도구가 될 것 같고, 사진 뿐 만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림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구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한국이랑 아태지역 중 한 국가가 참여하는 형식이거든요 사진교실이. **참가국을 좀 늘리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정훈 : 좋은 것 같아요.**

연구자 : 왜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정훈 : 큰 이유는 없는데, 최대한 많은 국가들과 교류를 하면 그 점은 좋을 거 같고.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연구자 : 네네. 그리고, 사진 말고 영상이나 다른 예술과 접목해서 사진교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정훈 : 다른 예술매체를 들고 와서 운영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같은 시기에 같은,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진교**

실에 영상을 추가해서 사진 3일 영상 3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예 사진교실이나 영상교실을 따로 운영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 ○ 사전교육, 참가기간,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

민지의 경우 고2 재학당시, 학기 중에 사진교실에 참가해야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던 이유는 학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다. 또한 사전교육 기간 역시 “중간고사 2일 전”이라 당시 지방에 살았던 민지는 사전교육에 오지 않으면 사진교실 참가가 안 된다는 원칙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친구랑 서울까지” 왔다고 회상했다.

민지: 기간도 좀.. 일정 자체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기간을 피해야지 저희가 부담을 좀.. 입시를 준비해야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험 끝나고 다음 주에 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좀 돼서, 수행평가가 밀려있는 거예요. (사진교실) 돌아와서 힘들어했거든요. 기왕이면 딱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전이나 방학 중에.

따라서 추후 사진교실에 더욱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참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업 일정을 더욱 세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민지의 경우 “레크레이션 시간에 한국 친구들이랑 태국 친구들이랑 서로 사진을 가져와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어떤 부분을 소개 하고 싶고…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사진교실 현지에서



뿐만 아니라 양국의 참가학생들이 기존에 자신의 국가에서 찍었던 사진을 사진교실에서 ‘공유’하는 것도 상호이해, 교류와 소통에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정훈 역시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경복궁, 서울역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캄보디아 사진교실에 참가했지만 현지에서 한국에서 가져간 사진을 소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사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평소에도 사진에 관심이 있는 만큼 자신의 국가에서 찍었던 사진을 사진교실 현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학생참여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결시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훈의 경우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해주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5년에 한 번씩 “정기전시회”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정훈 : 그래서, 저희 때도, 캄보디아에서 돌아오면 저희가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를 한국에서 열 수 있으면 열어보겠다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사진전시회가 개최되지 못했고. 어떻게, 그냥 다녀온 이후에 그냥 끝이었어요. 단 **한통의 연락이나 그런 것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끝이었고. 뭔가.. 그.. 결과물로 .. 아태교육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뭔가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돌아와서 아무 것도 없기 끝나니까 허무했던 것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 이게 매년 그렇게 개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매년 진행되는 행사다 보니 축적되는 사진이 많을 텐데 그걸 5년마다 모아서 정기전시회를 연다거나 이런 식의, 다른 행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

은데. 딱 캠프 갔다 오면 끝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또한 정훈은 “애초에 그 전시회를 현지 국가에서 열다 보니 한국에서는 열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 저희가 찍은 사진들을 바로 업로드 하는 아카이빙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참가학생들의 경험과 의견을 종합해보면, 사진교실 프로그램 운영시 사전단계, 현지에서의 운영과정, 이후 사후관리의 단계까지 보다 연결성 있고 학생중심형 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 나. 해외학생 사례

### 1) 참가 계기: 사진과 사진기술에 대한 흥미, 해외 친구들과의 소통

국내 사진교실 참가학생들처럼, 해외 참가학생들 또한 사진교실에 참가하기 전부터 사진에 대한 흥미가 있었다. 또한, 사진을 매개체로 해외 친구들과 소통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 사진교실에 참가하게 되었다.

Anne의 경우, 사진교실 참가 이전부터 이미 사진에 푹 빠져 있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따로 사진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었고, 대회에도 수차례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다 학교에서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Anne은 다른 학교 혹은 다른 나라의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딱히 없던 차에 사진교실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참가지원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Anne : the reason was because I was into photography at that time. ... and I think there wasn't really any opportunity that time to, to be able to meet with different people from different schools and just meet with the Korean students as well. So I think it was just like a really good intersection of what I wanted to do.

Luke 역시 참가 이전부터 사진에 대한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었으며, 사진 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사진교실에

참여하였다. Luke는 사진 관련 수업을 수강하기도 했으며, 학교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사진을 찍은 경험도 있었다.

Luke : my motivation maybe, I had experience on the photography and I have some interest in photography also. **And I wanted to upgrade my skills on the, on the EIU to understand about the formal technique in a photography.** ... I had some unit classes for photography that I have, studied in the unit. I have some exercises to take photography on my teacher's wedding.

Beth 역시 사진에 대한 관심이 참가 전부터 있었지만, 직접 찍어본 경험은 없었다. Beth는 사진을 찍어보고 싶고, 사진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사진교실에 지원하였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사진만을 위한 과정인 줄 알았다고 전했다.

국내학생과는 달리, 해외 학생들은 모두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의 초점이 '사진기술의 습득'에 있다고 생각하고 참여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2) 사진과 관련한 경험 및 사진으로 소통할 때의 장점

○ 몰랐던, 혹은 책에서만 읽었던 자국의 새로운 모습 발견  
해외참가자들은 사진교실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자라왔던 자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Anne은 줄곧 도시 지역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시골을 가 본 경험이 없었다. 사진교

실에 참가하면서 사진을 찍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토록 넓은 들판과 버팔로들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한다. 시골 지역의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경이로운(eye-opening) 경험”이었다고 회상한다.

Anne : it was very, it was so nice. And yeah, it was very eye-opening as well.

연구자 : Eye-opening! What was eye-opening? Can you tell me one concrete experience?

Anne : Yeah, so with one of the locations that we took the photo, we had to go to, I couldn't remember where, (laugh) it was like a picture of... it was like basically Village kids, the kids from like rural Indonesia. And they were playing with like Buffalo like in the middle of a rice field. It was eye-opening. Cuz number one. I've never been to that part of Indonesia even cuz I grew up in like the urban city. So I had to like basically understand more about my culture through the program. ... It was just so pretty and yeah, It's like “oh I didn't even know something like that existed, very close to where I live.” So yeah.

Luke는 인도네시아의 식민역사에 대해 글로만 알고 있었다. 사진교실을 통해 역사적인 장소들을 직접 방문하고 촬영하면서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자국의 역사를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 배웠던 토착민(Indigenous people)들의 삶을 직접 보고 그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Luke는 자신의 문화적 지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고 회상한다.

연구자 : OK. So what do you think you learn from the program? Like you learned some culture of Indonesia before Indonesian independence. Other than that, did you discover something in Indonesia?

Luke : yes. Because, I am only have a cultural thoughts when I read a book, not for reality, it's like historical, what is it, we had, I get some imagination from the historical places. When I go to there, I had some imagination: "The place when Dutch colony here". the place for the our people were worse and other things. Like, what is it. construction of the historical construction. construction for historical event that reality going on there on the place. **some historical I get from the going to the place. but, my reading also. it's my imagination "oh, what a book says and places here" from the book to the reality. ... I go to the Taman Mini, It's Indonesian national park for showing the culture of our culture.** They have , what is it ... people in the national park, I meet them, I know them, I communicated with them. I get a lot of new experience to communicate with the real indiginous people that i've known in the school. I think it's more, more upgraded me to know a lot of things in the exhibition.

Beth가 사진교실에 참여하던 시기는 몽골의 나담 축제기간이었다고 한다. 그 덕택에 방문했던 시골지역에서 자신이 몰랐던 자국

의 전통 음식, 전통 가옥 등 여러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자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고 회상한다. 그는 이러한 경험들이 마치 ‘모험’같았다고 이야기한다.

○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언어장벽을 자연스럽게 극복

한국 학생들과 교류했던 경험을 이야기 할 때, 세 참여자는 모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종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서로의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졌다.

Beth는 사진교실 첫 날,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에서 몽골 학생은 몽골 학생끼리, 한국 학생은 한국 학생들끼리 무리지어 앉았다고 회상한다. Beth에게는 다행히, 다른 친구들과 달리 어렸을 적 한국에서 잠시 살았던 경험이 있었던 덕에 한국어를 조금 구사할 수 있었다. 덕분에 다른 자국 친구들보다는 한국 친구들과 좀 더 원활히 소통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는 물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다른 자국 학생들은 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았다고 회상한다. 더군다나 당시 사진교실에는 통역사가 없어서, 짧은 영어와 바디랭귀지로 소통을 해야만 했다고 말한다.

Beth의 경우, 개회식(opening ceremony)를 할 때가 되어서야, 양국 학생들이 서로 준비해온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조금 어색한 감정을 풀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특히 K-POP이 몽골에서 인기가 많은 덕에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쉬웠다고 이야기했다.

Anne은 언어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오히려 같은 나라 친구들끼리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버블’ 밖으로 쉽사리 나오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회상한다.

Anne : **I feel like it's less about the language but it's more about like you are more comfortable just being with your friends and that make sense.** Like I remember although we were in the same bus we were in the same like lunchroom. The Koreans would always sit with the Koreans like the Indonesian would always sit with the Indonesian. so I think I have to make the conscious effort of like, bridging that conversation and just like approaching the Koreans first. but I feel like we're both uncomfortable getting out of that bubble.

Luke도 언어장벽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소통은 가능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의 친분을 지금까지 유지하여 사 진교실에 참가한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

Luke : I think it's language that we had problem but on the programs, I can know each other and I can communicate with them. Until now, I have some communication with them. Like ○○ and ▲▲. **I have communication with them on facebook. Yeah yeah.**

연구자 : so it's been almost 7 years and you guys are still



in touch. Wow.

Luke : I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and then one of my friend graduate soon from university and then he joined the military of Korean I think. Good friendship. I'm very grateful to have a friend from EIU class. Yeah yeah. So exciting and so grateful

이렇듯 해외 참가학생들은 결국 한국 학생들과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통하며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Anne와 Beth**는 한국 학생들과의 소통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주제로 케이팝과 케이드라마를 이야기했다. Anne은 자라오면서 자국에서 케이팝과 케이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하면서 자랐다. 본인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한국 문화에 완전히 열광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한국문화에 노출되어있었기에 한류를 주제로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고 말한다.

Anne : I think yes. to be honest with you. I **feel like with Korea and Indonesia, it's always like K-pop and like the k-dramas right? In Indonesia it's so popular.** And I kind of grew up knowing that it is something that my friends enjoyed but I never myself jump into like the whole K-Pop trend. ... I know one of my first conversation was about Kpop. Cuz it's like everything that we can just connect to.

연구자 : Oh. Was the K-POP popular in Indonesia, back then?

Anne : Yeah (laugh)

연구자 : Like who?

Anne : I think it was Girls Generation and like Super Junior. So it's very like.. they're old now, right?

또한, 특별한 주제 없이도 한국 학생들과 함께 버스 등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무르거나, 같은 조에 배정되어 함께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특히 Anne은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각자 찍은 사진의 의도를 묻고 감상을 나누면서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다고 기억한다.

연구자 : Did that continue to the end of the program? Like, did you get, did you guys get closer after?

Anne : Yeah, we definitely got closer. I think one of the reason was because yeah, we were placed... and if I, if I remember correctly we were placed in groups and in each group, It's a mix of Indonesian and the Korean. ... And I think because we're placing groups, we were kind of always forced to talk to each other almost, and then I remember in the last day we were asked to make like an exhibition. I think that's when we kind of got closer because we asked each other a lot of like what the photo means, and that, **but I remember vividly a lot of the conversation happened in the bus. cuz were traveling a lot to the place that we're going to take pictures in,** like the bus was a memorable part of the trip cuz we were like Jakarta is the traffic is really bad. ... it's the small things that I think that made us closer as time goes by.

## ○ 문화 교류: 문화 간 공통점과 차이점 발견하기

Luke는 한국 학생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학생으로서의 경험, 시민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질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특히 같은 아시아 문화권으로서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연구자 : what made you guys close? What made you guys friends? How did you become friends?

Luke : we shared about a lot of things maybe story from Korea and Indonesia, experiences as a students, as a citizen, and then our culture talks and I think yes. **We had a good communication because we're Asian and we have some a lot of similarity and I think it's make our communication more adaptive in the event.**

Anne은 한국 학생들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나가고, 사진에 대한 흥미를 공유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같은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로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발견하는 과정이 즐거웠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자국 학생들의 일상에서 가족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노인을 공경하는 정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Anne : and I think an eye-opening part as well as just

how there is a lot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culture and Indonesian culture. We spent a lot of time connecting with Korean students as well, I remember it's like having lunch and dinner with them. So eye-opening because we shared a lot of things, a lot of similarities in terms of culture, in terms of our interests with photography. So that was kind of was eye-opening.

...(중략)...

Anne : I feel like the biggest similarity with being like an Asian country. And how family is a huge part of like our daily decisions. I feel like I remember having a conversation on family and I remember I'm even now I feel like in the US some kind of bias cuz I feel like tha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kind of accumulate as time goes by. ... I know that a lot of my Korean friends are very persistent and like they're pursuing their academics. I think that is there is sort of a similarity with us being at Asia. I feel like the food to an extent is quite similar as well. Very full of like spices, that's one. but I think a big part is really that respect for family and respect for elderly. And I, I think that respect part even with me here in the u.s. speaking to people that are from Korea and from the US , for example , there is a different level of politeness.

한편 Beth는 한국 학생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친해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Beth는 사진교실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각종 바디랭귀지, 몸짓(action)을 사용해야만 했는데, 심지어 바디랭귀지조차도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과는 문화도 달랐고, 게임을 해도 달랐다. 말 그대로 모든 게 달랐다. 그래서 서로서로 알려주면서 친해질 수 있었다.

### 3) 사진교실 참가 후 변화, 성장의 경험

○ 발견, 재발견(낯설게 보기): 자국의 새로운 발견과 체험  
사진교실 당시 Anne은 인도네시아의 대중교통과 어떤 사내, 그리고 아이가 있는 사진을 찍었다. Anne은 사진교실을 통해 자신이 모르던 인도네시아를 발견하는 한편, 자신이 알고 있던 인도네시아를 다른 각도로 촬영하면서 새로움을 발견하였다.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지나치던 광경을 촬영하면서 Anne은 작은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appreciate)하였다. Anne은 그런 일련의 활동을 “매일 보고 지나치는 것들을 예술로 변화시키는 경험”이라고 말하며, 매우 경이로운 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또한, 그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로부터 더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연구자 : ... Do you think photography as a medium was helpful to redefine your culture and rediscover your Indonesia?

**Anne** : I think it is very helpful as I mentioned before to you. I never knew that there was that village where Buffalo and little kids playing in the middle of rice field if it wasn't because of the photo class. so through photography I was

able to find angles of my country that I've never seen before. I remember that one of my photo was , It's like, like a public motorcycle, but then it's like public transportation...

연구자 : like tuk tuk?

**Anne** : yeah, like tuk tuk. Yes. A guy in a tuk tuk, like a child, but then like, I see that everyday. When I was in Indonesia, I see that everyday but because of this photo class, I was like I was put in the place where I had to appreciate very small things of my city and of Indonesia, cuz I was constantly trying to find angles with nice angles for me to kind of take that photo so is very yeah. **It was very eye-opening because I had to transform with things that I see everyday into an art and that is enjoyable for people.** So I think it's just through that. cuz the things that i takes photo of in that photo class was things that, again, I see everyday right? I didn't know that that guy still existed an hour away from where I live, but then it is basically my community. It's where I live, but I was kind of like pushed in a, pushed to learn more about the things around me through photography.

또한, Luke는 사진교실 이후에 타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많은 관용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소셜 미디어와 뉴스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타자들이 인간으로서 지니는 가치에 대해 숙고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Luke : maybe, other things that I can get on the APCEIU photo class, **maybe I can be wiser, more tolerant with others.** I can also understand, not just stereotype people, bad things I get on social media, on the news, I can more know about how they, how we some value to become a human. "oh. korean is like this. this is like us" and then, yeah. maybe i can more.. accept open to the a lot of people ... I can more open and accept other people that have differences, value, culture, and religion. I'm more open. like "oh, I can be more open-minded to justify other people". I can get more value from that.

나아가, Luke는 사진이라는 매체가 사람들과의 소통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사진을 통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사진교실을 통해 Luke는 피사체를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며 그들과 자신을 연결 짓는 방법을 배웠고, 그들의 열정, 가치관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Luke : In the photography maybe we get some like that. I think when we take some photos, photos from somebody, we have to communicate with the somebody. We tried to upgrade our relation with other people. What's manner for them. What's allowance for that. What is should not to talk with there? when we took our way. we more have communication value on the photograph. we can know

each other. we can know how to maintain our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that's called human in the photography. we have to maintain our interest to there. **I think I can get some value from the technique, how to communicate our object. that is, that's the object of other people.** We can have connection or relation with the object. I can get that. I can get the value, not just a technique. human, passion, value, I think that.

Luke는 사진교실에서 배운 사진기술을 통해 사진의 구도를 잘 잡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덕분에 사진교실 이후에도 사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지하여 꾸준히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 하였다. 그렇게 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인도네시아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싶었다. 그러다 자신의 사진이 인도네시아 사진 커뮤니티의 눈에 띄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사진교실 수료증 덕분에 Luke는 모 대학의 건축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Luke : From that, I'm more maybe diligent, more active on the photograph and I come to photographic community in my country, national scale, then I'm going to travel some places for tourism activity. I'd like to promote place that have potential for toursim. I want to explain, I want to promote some places ... yeah. and somehow I take the photos and I uploaded it in instagram. I take some hashtag for some toursim, I get award from community of



photography, national photography community from Indonesia. I have some badge, badge or certificate that your photos is good. yeah. ... I come to architect major with my certificate from EIU (class).

○ **치유적 효과: “경쟁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됨**

Anne은 사진교실 참여 전에도 학교 밖에서 사진을 따로 배울 만큼 사진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던 학생이었고, 사진대회에 수차례 참가했던 경험도 있었다. 그래서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을 시작할 때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보다 사진을 잘 찍어 더 많은 칭찬을 받는 친구를 질투하기도 했다. 그러다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 클로징 멘트를 준비하면서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은 애초에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한국 친구들은 인도네시아 문화를 배워가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면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Anne은 그때 인식이 변한 것 같다고 회상했다.

연구자 : ... especially for last exhibition, watching your friend's photography. Can you tell me something that you felt? watching friends' photos?

Anne : ... So I remember when the exhibition comes up and there is one photo of my friend. I couldn't remember what it was, but it was very good and he got

complimented a lot. I kind of like ... I wished I followed him more in terms of what he took the photo. So I was able to kind of get a similar result with him. So it was very... it's not a competition. Right? Like it's wasn't a competition. There's I don't think there's even like award for like best pictures or anything like that. Correct me if I'm wrong, but I think, at the beginning I was like, "okay. I want to be the one that picked the best picture" but I remember the last day I had to give a speech as like a closing for the photo class and then, cuz someone from APCEIU wanted me to so I'm like, " I'll do it. ". And then that's when I remembered that this was never a competition in the first place. Like it doesn't matter who took the best photo and it doesn't really matter who, who like got the most compliment and because of that, I think I started to change my mindset of having these people taking photos with me as like, especially the Koreans like, this people are putting the effort to appreciate the Indonesian culture a lot more through photography. Being honest with you, **starting off, it was like jealousy and like I wanted to get the best picture but it was like in my last day when it's kind of switched and it's more like, "oh my God like these people flew from Korea to like learn more about Indonesia and they're all also my friends"** that, you know, probably. It appeared their whole life and never knew Indonesia was like this. So, It was like a switch of perception as I get to know people better and that's how I reflected more that it was never a competition in the first place. So yeah.

사진교실의 영향력은 종료 후에도 해외학생들의 기억속에 남아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었다. Beth는 자신과 모든 것이 다른 한국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교류하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고, 상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말했다. Beth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다문화주의, 다양성, 문화다양성, 차이(differences)들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이 당시의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Beth는 현재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의 한 국제대학에서 international relations를 전공하고 있다. 국제대학 특성상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매일같이 마주하게 되는데, 사진교실에서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고자 노력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 4) 사진교실에 바라는 점

##### ○ “전시회 기간 연장, 더 많고 다양한 방문객 초대”에 관한 의견

Anne에게는 하루 뿐 이었던 전시회 기간이 너무 짧았다. 또, 당시 전시회가 개최되었던 곳이 대학교라서 대학생들이 관람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Anne은 고등학생을 비롯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전시회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진교실을 통해서 학

생들이 서로 다른 각도로 조명했던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진교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Anne : I wish one more thing that I wished we did more is exhibition should not be just one day. I feel like I couldn't remember it but I think and Indonesia, **it was only one day and I wish we could have invited more high school Indonesian students to come to the exhibition and experience that.** Cuz the one in Indonesia it was in a university that EIU photo class happened in the university and the people that came into our exhibition are University students. So I wish That high school students could come and participate so they could like interact with Koreans and like understand like those angles of Jakarta that they've never seen before so I think it's just like expanding the impact of the EIU photo class by inviting people. They're not necessarily in the program, but they're part of the community.

#### ○ 더욱 다양한 이벤트 기획에 대한 의견

Luke는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한 것들을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책이나 인터넷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이상의 비밀스런 것들을 교류하는 자리, 예를 들어 특히 북한과 남한의 차이나 관계 등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Luke : maybe, I want to more, more... I want to make some event that make we share about more their country,

their culture, yes. That we can get from book or internet. Maybe I always curious about new guy that come to me, come to our country. **I always very curious for that. what's different between korean, north korean student or korean north and south**, what is the secret of, relation between maybe, maybe, maybe, maybe with the student from north korean. i'm very curious about that. other things secret of their country.

### ○ 사진, 문화 관련 전문가의 초청강연에 관한 의견

Anne은 사진 혹은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면 사진교실의 경험이 더욱 풍부해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Anne : Oh, I wish we invited like a professional photographer to come and talk to us like maybe like someone or I don't, not even photographer but like someone that cares about the culture like just inviting a guest speaker to their program. I think that would be interesting.

### ○ 숙소에 관한 의견: “숙소 및 머무르는 장소가 같거나 가까워야 한다.”

Anne은 사진교실이 진행되던 장소가 집과 멀리 떨어져있지 않아 매일 어머니께서 직접차로 데려다주시고, 데리러 오셨다. 집이 먼 다른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호텔에 머무르긴 했지만, 한국 학생

들과 다른 곳에 머물렀다. Anne은 양국 학생들이 같은 호텔에 머무르는 것 만으로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Anne : But I think if we were placed in the same hotel, at least there's going to be more conversations between the Koreans and Indonesians. It is very simple small thing, but I think It would matter a lot more because like I remember I was like in middle school and that's when like a time where you know, I like to hang out with friends and what not. So, I think it would be a lot better if you were in the same place.

Luke 역시 한국 학생과 참여국 학생이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지인 학생의 집에서 머무르는 방안을 추천했다. 이를 통해 참여국의 문화, 삶, 가치관, 종교와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통해 한국 학생과 참여국 학생이 더욱 결속력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Luke : the participation from foreign must live on the local housing. like ■■ come to Indonesia, he should be living in my home for more know my culture, my life, what Indonesian culture, there, in the home, the value, culture, religion, and other thing. i think it's more binding for the local and foreign student. i think it's more important. if EIU have some concern cultural movement or cultural thing.

○ 다자국 확대 및 사진 이외 매체 활용에 관한 의견

Beth는 2개국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보다 다문화 ('Multi'cultural)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Anne은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 Anne은 사진 교실이 자신에게 큰 의미를 남겼던 이유가, 참가자 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단 두 문화권의 학생들이 소규모로 모여 소통하였기 때문에 깊은 문화교류가 가능했다고 생각했다. 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겠지만 문화다양성에 압도되어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였다.

Anne : ... if there's like another country that conversation I might just be, be very like overwhelmed and it's not going to be as meaningful because I'm not able to understand my culture and Korean culture as much as I would have when there's only the two of us. So I think that would be but that would be a problem. But I feel like there is also good part and just having more countries if it's for a good purpose we can learn a lot more in such a short time. But that intimacy part and the depth might be reduced and I think what I like what the photo class was the amount of depth. we're able to get into the photos of place we visited and like the program itself. It was very like, **Personal and like meaningful.** I'm just afraid that if we have more people in the program, we will it's not going to

be as deep almost so yeah.

Luke는 사진 외에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영상을 활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문화적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토착민들이 먹는 음식, 걷는 모습,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행동들을 더욱 많이 담을 수 있다.

Luke : maybe if the video class, it's more explanatory to connect with the cultural senses. yes. if. if cultural sense value can more explain, can more good option to upgrade for the presentation of the cultural, some cultural activities. what else.. we didn't know about whole indigenous eat, indigenous people going to take, going to walk, going to search for their sustainability, what's going on in the indigenous people, like, we curious about indigenous people to get food, their , their study, their economics, values, we can more get some value from one media.

### ○ 사전교육, 참가기간,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

참가 기간에 관련해서는 참가학생들마다 다른 의견을 보였다. Anne와 Luke는 자신이 경험했던 7일 가량의 기간이 적당하다고 본 반면, Beth는 너무 짧았다고 이야기했다.



## 2. 사진작가 면담분석 결과

### 1) 현지에서의 경험

○ 현지 코디네이터, 사진작가와의 협력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진교실의 내용

성 작가의 경우, 현지 코디네이터의 협력정도에 따라 실제 현지에 가서 사진교실의 내용이 달라짐을 이야기 하였다. 성 작가는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경우, 현지 코디네이터가 매우 원칙적이고 타이트하게 사업을 운영해 협력이 쉽지 않았음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동시에 성 작가에게 러시아는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이기도 한데, 전시회도 왕궁에서 진행했으며 공간을 찍는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의 참가 학생들이 밝고 오픈마인드 태도로 사진교실에 참여하였고 한국학생들과 러시아 학생들 간의 소통도 좋아서 러시아가 기억에 남는 국가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현지의 준비수준과 협력 정도가 사진교실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태교육원 실무자들을 면담했을 때도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사진교실을 운영할 때 한국과 아태지역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허 작가의 경우, ‘현지작가’가 누가 섭외됐느냐에 따라 사진교실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전했다. 현지작가는 주로 현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나 교육부에서 섭외를 하는데 상대국 실무자의 수준,

준비정도에 따라 사진교실 상황의 변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성작가의 경우에도 어떠한 성향의 현지작가가 섭외되느냐에 따라 사진교실 분위기 다르다고 밝혔다.

허 작가 : 저희는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는데 현지 작가의 경우, **현지 기관의 섭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가가 오긴 하는데...** 크게 어긋나거나 당황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건 다른대로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마다 많이 다르긴 하죠. 베트남에서 갔던 친구는 재밌었죠. 태국 작가도 재미있었어요.

## 2) 사진교실 개선을 위한 논의안

○ 사전기획 단계부터 사진작가와의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

허 작가는 현지에 가면 물리적 시간 제약으로 인해 시간에 쫓기고 마감의 압박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국내 사진교실 실무관계자에게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이에 허 작가는 현지에 가기 전부터 사전준비, 그리고 정리작업 단계에서 사진작가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밝히며 사진교실의 사전/사후단계에서 사진작가와 함께 협력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허 작가와 성작가는, 아태교육원에서 사전답사 시에 사진작가와 함께 가서 답사를 여유롭게 해야 전시준비를 더 충실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연구자 : 우리(한국) 측에서 준비를 어떤 걸 더 해가면 좋을까요?  
성 작가 : 음.. 준비 많이 해가면 좋지요. 근데 현지에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아태교육원에서 사전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원장님도 그러셨고 조금 더 충실하게 여유를 두고 가서, 작가도 한 명 가서 좀 더 현지.. 실질적으로 좀 하자. .. 간단히 말로 풀어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해도 현지인이 이해가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해마다 그런 게 다른데, 한국 사람들이 또 부딪히면 해내잖아요. 늘 처음 하듯이 부딪혀서 해내잖아요.

허 작가 : 저는, 남의 조직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사업의 종류를 좀 줄이고, 내실을 좀... 더 기하는.. 이를테면, 전문적이고 깊이 있으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더 뽑아주던가, 아니면 일을 좀 줄이는 게 어떤가 하는... 제가 마음걱정 하는거죠...(중략)...**사진교실** 자체도 좀 여유 있게 준비하고, 길게 봐서, 해마다 좀 프로그램 회의하는 단계부터 직접 우리 가르치는 사진가들도 참여를 해서 내실을 ...

#### ○ 현지화, 구체화된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허 작가는 사진교실 운영해보면 해당국가에서는 일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를 떠나 결과물은 유사,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에서는 가난한 삶의 모습 등을 오픈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좀 더 현지화, 구체화된 경험을 위해 프로그램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지화에 대한 경험은 국내 참가학생들 역시 사진교실에서 원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성 작가 : 국가 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자기들이 열고 싶은 게 있고 닫고 싶은 게 있고 하다보면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현지에서는) 못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거고. 결과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목을 정할 때 듣기 좋은 뉘앙스만 선택하면서 비슷하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허 작가 : 주제가 바뀌는 건 현지의 입장이 센 것 같아요. 올해 한 번 그런 행사를 하는거니까, 그 나라입장에서는. 결국 그러다보니 대동소이한 과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현지 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지금의 방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화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순 있겠습니다만은.**

허 작가는 현지에서 사진 강의 및 학생들 사진에 대한 피드백, 가능성 등에 이야기를 나누면 학생들 반응이 좋았다고 밝혔다. 이에 추후에는 현지에서 사진 선택 및 전시작업을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사진작가들의 분업을 통해 일부는 사진 강의 및 사진 피드백, 일부는 사진 선택, 전시작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이다. 성 작가, 허 작가, 유 작가는 모두 사진작가들이 전시 준비 및 사진 선택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소외되는 것, 그리고 사진 자체에 대한 리뷰를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유 작가 : ...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어떻게 찍을지에 대한 고민은 같이 했지만, ... 사진의 결과에

대한 소통을 많이 나누지는 못했어요. 사진을 보면서, 좋은 사진과 나쁜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이 친구가, 왜 이 아이가 이런 사진을 찍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제와 연결할 수 있는 ... 그런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리뷰시간이라든지 아이들과 사진적으로, 결과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좀 아쉽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 진행하면서요.

이에 대해 성 작가와 허 작가는 일부 사진작가들은 전시 준비를 담당하고, 나머지 사진작가는 학생들과 리뷰 및 교류를 하는 식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허 작가 : 그런걸 공유하는 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몽골 같은 경우 (사진작가) 두 분이 프린트 한참 하실 때 저는 남아서 학생들 작품 고른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한마디씩 직접 설명을 했거든요.

성 작가 : 그런 식으로 분업을 하면 좋네. 왜냐면 동시에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물리적 시간상으로 불가능이예요.

허 작가 : 사진 강의도 하고 남는 시간에 학생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잘됐는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느낌과 정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 현지 작가와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협력 강화 필요  
유 작가는 국내작가와 현지작가가 함께 작업에 착수할 때 시너지가 많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이러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작가 간 사전 미팅 혹은 화상 회의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금까지 현지 작가에 비해 한국 작가의 수가 1:3 정도로 현저히 많은 점을 들어, 양국 작가의 비율이 비슷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남겼다. 유 작가는 작가 구성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한국 학생들에게 현지 작가를 통해서 현지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 작가, 허 작가의 경우, 사진교실 마지막 날 현지작가가 호텔에 함께 체류하여 공동작업을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사진작가에게 업무로드가 걸릴 때가 있다고 밝혔다.

성 작가 : 그 친구들(현지 사진작가)은 메인 호텔에서 같이 머무를 순 없다고 하지만, 마지막 날은 안정적으로 좀 같이 스테이 할 수 있도록. 왜냐면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좀 심했어요. 왜냐면 취합을 하거나 뭘 하는데, 이 친구가 집엘 가거나 뭘 하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어서, **마지막 날은 그냥 여기서 잡아놓고 스케줄 다 비우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허 작가 : 방콕에서 한 사진작가가 치앙마이로 와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결국 마지막 날에는 현지작가의 일을 우리가 분담해야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닌데 일을 분담하는 문제를 떠나서 같이 참여하고, 그 사람의 주관을 골고루 반영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 참가학생 사후모임 및 네트워크 활성화, 한국 전시에 관한 필요성

허 작가는 사후모임을 통해 작가-학생들의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뉴스레터 발송 등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 전했다. 성 작가도 국내전시 등을 통하여 사후모임을 지속하여 참가했던 학생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SNS를 활용하여 사진교실이 홍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이를 위한 “모멘트”가 필요하며, SNS의 자연스러운 증폭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차원에서 전시회 개최 및 만남의 기회와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작가 : 참가학생들도 서울에 와서 '야 수고했다 잘 가!'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런걸 좀.. 누군가가 소극적으로라도 관리 하는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편으로 이어가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걸 또 직원한테 맡기면 일이 되긴 하는데 (웃음)...(중략)... 하다못해 요즘 아이들 이메일 있으니까 뉴스레터라도 한 번씩 보내주고, 우리 소식도 한 번씩 전해주고, 국내에서도 전시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성 작가 :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보면 원론적으로 보면 전시든 뭐든, 효용성이 뭐냐고 이야기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차피 SNS나 이런 것들의 거대한 증폭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고, 묻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멘트가 없으면 개인이 다 노력해야하고 분산이 되는 거죠.

유 작가 또한 3-5년 간격으로 국내 전시회를 개최하여 사진교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각 나라의 학생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며, 사진교실이 가진 ‘선한 영향력’을 잊지 않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남겼다.

### ○ 노후화된 카메라 교체의 필요성

유 작가는 현재 아태교육원에서 카메라가 없는 참가 학생들에게 대여해주는 ‘똑딱이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작가 : ...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사진을 찍게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계끔 그렇게 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카메라를 들고 오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들,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좀 맞추게 해서, 저희가 일부만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유 작가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개인적으로 DSLR 카메라를 가져오는 학생에 비하여 ‘똑딱이 카메라’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허 작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카메라가 사진전을 개최하기에 지나치게 노후화된 점을 지적하였다.

### ○ 스마트 폰을 활용한 사진교실 운영 제안

이 작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에 스마트 폰



이 보편적으로 보급된 점, 그리고 스마트 폰 카메라의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된 점을 들어, 스마트 폰을 활용한 사진교실 운영을 제안하였다. 한편, 허 작가는 핸드폰에 따라서 전시에 적합한 크기의 인쇄를 지원하는 기종이 제한적인 점, 그리고 사진의 교육적 측면에서 스마트 폰이 가지는 한계점을 들어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유 작가는 스마트 폰과 카메라의 기술적, 연출적 차이점을 들어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한 각 사진교실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 ○ 국내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개최의 필요성과 가능성

유 작가는 외국 학생들을 국내로 초청하거나,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학생만으로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추천하였다. 가파도에서 사진교실을 진행했었던 경험을 회상하며, 유 작가는 국내에 존재하는 문화 다양성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국내 사진교실 개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이 작가 또한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이 꼭 국제적 환경에서 실행될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며, 사진 소재의 무궁무진함을 역설하였다. 허 작가, 성 작가 역시 ‘사진교실’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

이 작가 : 만약 사진교실을 연다면, 자기 동네를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전부죠 ...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모습이 어떤 때는 풍경이 될 수 있고, 풍

경이란 것도, 자연풍경 뿐만 아니라 아파트풍경, 도로풍경, 공  
사장풍경, 마을풍경 이런 게 다 풍경이야. 이런 것 들을 찍게  
만들고, 또 자기의 할머니, 할아버지, 강아지, **전부, 눈으로 보  
이는 것은 전부 사진의 소재 아니예요? 무언가로 제한하고 국  
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허 작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애들을 데리  
고 나가잖아요. 한번쯤은 다른 나라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건 어떨까.** 서울 한복판에 데려다놓지는 말고, 아이들이 가기  
힘든 뭐랄까 한국적인 공간에서. 각별한 경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경험을 만들면 어떨까

성 작가 :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를. 아니면 우리가 경험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걸 좀 한  
국에서 전시나 이런걸 해서,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  
는 자리,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게.**

### 3. 국내의 관계자 면담분석 결과

#### 1) 현지 기관의 협력정도 및 현지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진교실의 운영조건들

사진교실은 한국과 현지 양국 간의 협력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만큼 현지 국가기관 및 담당자의 협조와 준비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사진교실의 현지 운영상황과 조건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교실 준비단계에서부터 담당자는 한국에서는 학생선발 및 작가섭외,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며 현지 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진교실 운영을 위한 사진교실 코스선정, 호텔 섭외, 현지학생 및 사진작가, 통역가 섭외, 전시 및 인화장소 섭외 등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업무처리 속도가 빠른 한국의 상황에 비해 업무처리 방식과 속도가 한국과 다른 현지 기관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진교실 실무자는 현지에 가서도 현지기관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

관계자2 : 음.. 처음에는 준비를 잘 못하고 가서, 거기서 트러블이 생겼으면은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그 이후로는 진짜 사진들 준비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가기 전에 화상회의 몇 번 씩 하고 전화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가면 (웃음) 똑같이 더 힘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여가지고요. 그... 그것도 국가를 선택하고, 그 국가 위원회가 얼마나 협조적인지, 협조적인 위원회인지 거기서 프로그램 같이 해주시는 실무자분들이 얼마나 협조적인지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자체

가 다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해가도, 못 해가도, 그거에 따라서 너무 달라가지고요. 네... 개선할 게 있다면, 예. 개선할 게 있다면... 준비를 잘.. (웃음) 그런.. 준비를 잘 해가야 하는데. 협력하는게 보통.. 관계자분들하고 소통이 긴밀하게. 잘 해야 되는데.

관계자1 : 정말 청소년들을 선발하고, 작가를 섭외하고, 현지를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현지 작가를 섭외하고, 현지 학생을 섭외하고, 현지 호텔을 섭외하고, 현지 전시장소랑, 현지의... 뭐, 인화할 수 있는 포토샵이나 통역들을 섭외하는 게, **특히나 현지 협력기관이 협조적이지 않으면 ‘맨 땅에 헤딩하기’같은 느낌이 있어요.** 현지 포토샵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뒤져가지고 국제전화 해보고.

연구자 : 아 작가 분들 섭외할 때요?

관계자1 : 아뇨 인화할 수 있는 사진관.

연구자 : 네네.

관계자3 : 저는 주로.. 사실, 사실 원래는 스태프들이 각자 맡은 업무가 따로따로 있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한데, **저희가 매년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게, 대상국들이 일하는 속도나 진행 과정이 저희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타임라인에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개도국에 가서 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어 하고, 올해 안에 모든 게 결론이 나와 하는 그런 구조인데.. 대상국들이랑 일을 하다보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사진교실은 아태지역을 방문하여 7일-10일의 기간 동안 학생들이 찍은 사진을 ‘인화’ 하여 ‘전시회’까지 해야 하는 일정이

다. 단기간 내에 학생들의 안전을 챙기며 전시회까지 완결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일정 속에서 실무자는 현지에 도착한 후에도 현지의 협력기관 및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관계자1 : 엄청 많은 stakeholder(이해관계자)들을 상대해야 하거든요. 실무자들어요. 그것도 타지에서요. 그것도 불과 일주일 사이에 사진을 찍고, 아이들에게 사진관련 사고가 안나게 하면서, 재정 집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사진을 인화하고, 전시장을 세팅해서 관객들 오고... 불과 10일 안에 진행되는 일이라.. 학생들을 보기가.. (웃음)

관계자3: 저희가 아이들이랑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전시까지 하고 와야 해서, 가기 전에 갤러리 섭외를 하고 가는데. 그게 현지에서 원활하게 협조가 되어서 뭐.. 잘 진행이 되면 좋았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컨펌이 안된 상태로 가다보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행사를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갤러리를 봐야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하루 종일 같이 데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처럼 실무자들은 사진교실 운영을 위해 현지에서 여러 층위의 기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에 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쌓아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2 : 그.. 새로운 지역의 이해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국제협력실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사진교실을 통해 배운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intensive(많은 노력을

요구)하거든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사진 전시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현지 기관분들 한테도 좀... 힘들게 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더 친해지게기가 되어서, 이 때 만났던 분들은 지금까지 연락하게 되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3-4년 뒤에 다시 돌아가서 학생들 다시 만났었고.

## 2) 한국과는 다른 현지국가의 인화, 전시관련 기반들, 전시회에 대한 압박

사진교실에서 ‘전시회’는 사진교실에서 매우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전시회’를 통해 현지 교육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관련 기관 주요 담당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며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 및 홍보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에 사진교실 실무자들은 ‘전시회’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압박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현지국가의 사정상 한국 사진작가 및 관계자들이 원하는 사진 인화 및 전시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지 국가에서 인화 및 전시회에 관련한 기반이 적절치 않을 경우 실무자는 현지에서 직접 사진작가들과 함께 인화 및 전시 준비에 동참하기도 한다.

관계자2 : 현지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소통도 어려운 가운데 인쇄를 의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4시간 안에... 100 몇장을 인쇄하시오’ 요구하니깐, 그 사진 뭐죠? 사진.. 가게들 거기도 다 밤 새야 돼요. 저희 (웃음) 때문에. 그

러니까 너무...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무리한 요구를 현지에서 가서 하면서 한국의 이미지를 깨는 (웃음). **통아(통가)에는 중국인이 하는 사진액자가게가 있었거든요. 가서 저희가 막 액자 자르고, 유리 자르고..**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알바 써가지고 하고 막.. 너무 시간에 쫓기게 되니까요.

연구자 : (웃음) 그 사진 전시회는 보여줘야 하는 거니까.

관계자2 : 그게 조금, \*\*\*\*\*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요. (웃음) 멋있게 해주면은 그 쪽 사람들도 뿌듯해하니까, 잘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 기반이 잘 안된 국가에서는 힘들거든요. 그걸 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 작가님들은 밤 새시지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기본적으로 밤을 새시니까... 돈은 많이 못 드리고.. 유네스코에서 한다는 의미로 모시고 가고, 작가님들도 아시죠.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하시고.

관계자1 :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전시장이 안 정해진 거예요. 작가님들이나 오랫동안 런칭해오신 \*\*\*이나 이런 분들은 기준이 높으세요. 예를 들어 러시아는 궁전에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 이런 델 가면, 웬만한 호텔의 웬만한 전시장은 눈에 안 차는 거예요. 호텔을 찾았더라도 가격이 안 맞아서 협상을 하고, 뭐 하고... 그게 여기서 또.. 거기서 애로 사항이 많고요. 정작 장소는 구했는데 전시를, 하다못해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벽에 못질을 하면 안 된다던지 해서요. 제가 이젤을 만든 적도 있어요. 쇠로 된 이젤을, 철공소에 가서.... 정말 한국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무에서 유를..

연구자 : 어느 국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관계자1 : 그게 캄보디아예요.

연구자 : 아하... 그러시구나.

이처럼 사진교실에서 현지에서 여는 '전시회'는 그동안 사진교

실에서 매우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실무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시회를 위한 기반이 부족한 현지 국가에 가서도 전시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해진 일정내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인화, 전시 준비를 사진작가들과 직접 해가며 수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일-10일' 남짓 기간의 사진교실에서 '전시회'가 메인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실무자들은 그동안 학생들이 사진교실을 통해 어떻게 문화감수성, 세계시민성을 더 잘 배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아쉬웠던 점으로 생각했다. 이는 현재까지 주로 실무자 1인이 사진교실 행정업무를 현지에 가서 담당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참가활동 및 프로그램 구성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 것과 관련이 있다.

### 3) 사진교실 실무자로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

사진교실 실무자들은 사진에 관심이 있던 학생이 사진교실에 참가한 이후 진로를 구체화한 사례, 사진전시에 참가한 학생들이 느끼는 자부심, 뿌듯함 등을 목격할 때 실무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관계자2 : 그때 통아(통가)에서는 사진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그 나라에 없는데, 그 .. 나라 학생들이 이런 것도 job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그 때 유네스코위원회 사무총장 OO라는 분께도 보여드렸는데 그분도 학생들이 뿌듯



해하는 모습도 보고 되게, 프로그램이 좋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부탄도 산골에 가서 했는데, 거기 학생들도 굉장히 그... 자기 사진을 전시할 때 뿌듯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죠. 꿈을 키워주는. 그런 게 보람이 있었고

관계자1 : (베트남) 다낭. 네. 말없이 조용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사진.. 이라든지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작가님들한테 편지도 쓰고 그랬나봐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자기한테 계기가 되었다고 자기한테 어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연구자 : 한국 친구가?

관계자1 : 네. 한국 학생이요. 저 친구는 앞으로도 잘 지내고, 잘.. 잘 좀.. 잘 성장하는지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굉장히 조용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친구였는데, 무언가 좀... 무언가 깨진 것처럼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실무자들의 경우 사진교실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동안 사진 및 전시회 초점을 맞췄던 사진교실의 내실이 보다 강화돼 학생들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들이 더욱 보강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 4) 사진교실의 질적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민들

##### ○ 사진캠프가 아닌 사진교실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고민

이전 실무자들에게 기존 사진교실을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 질문하자 사진교실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을 바라고 있었다.

관계자2: 아쉬운 거는, 음... 지금 솔직히 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을 짧은 시간이지만 어... 괜찮은 그런 워크숍이나 세션이 한, 두 개가 .. 현지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기획이 되어서 두 나라 학생들이 잘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때 미진하게 했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잘 기획을 해서 사진교실 외에. 아니면 사진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를 잘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여력이..

관계자1 : 그냥... 진짜로 정말 사진이라는 거에만 함몰되서, 사진을 어떻게든 찍고, 출력해서 전시하는 것 외에 좀 다른..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좋을텐데. 신경을 많이 안 써왔죠. 정말 뼈대 같은 것들만이잖아요. 사진을 찍고, 인화해서, 전시한다. 안전에 문제가 없게 한다. 학생들의 성장이나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더 신경써야 한다고 봅니다.

## ○ 중장기적 목표설정 및 현지국과의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고민

관계자 1은 사진교실이 실무자 입장에서선 단기간 안에 높은 업무 강도를 경험하며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과 의사소통과 협력을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의 느낌이 드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언급하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진교실 운영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 했다.

관계자1: 그 아쉬움은 있었어요. 왜 장소를 선정할 때에, 그

때 그 때, 매년 즉흥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 많은 예산과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특히 담당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현지에서 우리들만의 잔치로 전시해버리고 마는 게, 이게 되는건가? 진짜 저는 좀 그랬..** 사진이라는 매개가, 국제이해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매개로, 어떤 접근이 가능한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일 수 있는지 접근이 되고, 중장기가 된다면 중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테마를 가지고 사진교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뭐, 시기든, 일정이든 참가자든 파트너십이든 다 점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관계자 1은 “**현지에서 하는 사진교실인데, 이니셔티브는 한국에 있는 것**”을 언급하며 “**현지기관이나 작가는 서포트 하는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후 사진교실에서는 양국이 상호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형태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관계자1 : 현지작가가 한 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작가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현지작가는 자신이 속한 ... 조를 짤 때는 한국, 현지학생들이 어울려서 짜게 하는데, 그 조를 잘 이끌어가고, 그런 거에만 집중하게 되고 현지작가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사진을 선택할 때에는 최소한 자기 조 것을 같이 하는데, 뭐 인화작업이나 전시작업은 아무래도 좀, 걸 돌고,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현지를 잘 알고, 애초에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을 해서 기획부터 같이할 수 있는 역할이면 파트너십이, 현지 기관이나 작가에 주어진다면...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한국 작가들에게도 이니셔티브를 주고 그렇게 잘 해왔고. 문제없이 전시

및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모르겠는데, 어.. 현지작가 역할이 많이 없었죠. 네.

### ○ 전시회 이후 결과물 활용에 대한 고민

국내 참가학생들의 경우 현지에서 전시회를 한 이후 국내에서 전시회 결과물 활용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하였는데, 실무자의 경우 현지에서 전시회를 마친 후 기증하고 오는 전시회 결과물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전했다.

관계자1: 전시는 뭐, 가끔은 전시장의 사정에 따라서 하루 이틀 더 하거나 일주일 전시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가버리면 그만인 거고. 이게 몇 명이 와서 얼마나 그들이 보고 있는지, 그래도 끝나고 나서 그걸 누가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 보통 현지 기관에 이야기해서 '니네가 알아서 수거해서 필요하면 전국을 순회하든 하라'고 하는데 지금 추적도 안 되고.

연구자 : 인화물들은 다 기증하고 오시나요?

관계자1 : 네. 그 당시 말로는 이.. 이런 박물관에 또는 교육부 과정에 고향에서 마침 이런 전시 원하니까 뭐 보내서 하겠다, 이 박물관에서 일주일 뒤에 했다가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뭐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관계자는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의 내용이 캄보디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었음을 알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의 내용은 캄보디아 학생들을 '우물 밖으로' 이끌어냈고, 협동의 정신을 가르쳤다.

관계자4 : ... you know that they all were living in the well. But now they open the well. Like, they come up from the well ... I took some part of the photo class to put into our national curriculum. we try to make students to do like a teamwork and we have to share each other what we have learned. ... it's very excellent for me we have already put some aspect of the photo class into National curriculum.

○ 전시회에서 학생들이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고민

인도네시아의 한 관계자는 사진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의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프로젝트를 통한 실습과 경험학습을 꼽았다. 이처럼 사진교실에서 ‘전시회’는 아태지역 현지 및 아태교육원 내부에서도 중요시 하는 행사이자 사진작가 및 관계자들의 경우 전시회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전시회’를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실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미션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실무자들은 현지에서 직접 발로 뛰며 인화소를 알아보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전시공간을 알아보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있다. 그러나 전시회를 준비했던 실무자들의 고민은 전시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에 관한 것이 있었다.

특히 전시회의 성공여부는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관계자 3의 경우 사진교실의 전시회가 “큰 공간에서 성대하게 전시회”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전시가

잘 됐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전시회를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이들이 사진을 찍은 주인공”인데 “아이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하는 시간” 등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웠던 점이라고 전했다.

관계자3 : 네 전시는 잘 됐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참여했던 적이 없어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국가마다 특성이 있어서, 캄보디아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굉장히 많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행사에 스태프들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아이들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교육부에서 아이들 케어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식, 세레모니죠. 오프닝 그런 식에 교사라든지, 교육공무원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초대를 해서 큰 공간에서 성대하게 전시회를 했었어요. 교육부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이죠.

관계자3;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청소년 사업을 했던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고, 이제 이 사업에서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어른들의 '식'이라든지, 행사라든지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면 아이들한테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게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캄보디아 행사 때에는 행사를 성대하게 하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아지는 행사였는데, 그 날 바로 귀국해서 와야 해서, 아이들이 전시를 했고, 아이들이 사진을 찍은 주인공인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아이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행사 끝나고 아이들 사진을 보는 시간이 있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행사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봐요. 우리가 귀국하는 시간에 쫓기고, 어쩌다보니 그런 부분

에 할애를 많이 못 한 것 같은? 근데 그건 교육부의 문제나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정상 좀 부족한 것.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해야 하니까 그런 게 있고, 행사 자체나 그들 교육부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보니까 다 이렇게 막, 유니폼을 입고 몇백 명이 들어와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면 사람들을 불러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아이들한테 그게, 아이들의 작품을 응원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막상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은 많이 갖지 못했어요. 우리는 바로 그 날 서둘러 귀국을 해야 하는 일정이었어서요. 끝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앞서 캄보디아 사진교실에 참가했던 정훈(학생3)의 경우에도 전시회 경험에 대해 학생중심이 아닌 ‘결과물’ 중심적이었다고 이야기하며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전시회’를 더 많은 캄보디아의 일반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여 이들과 소통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사진교실에서 전시회 및 사진교실의 전 과정이 보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운영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5) 국제협력업무 경험 차원에서 더 많은 직원이 사진교실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

한 실무자의 경우 아태교육원에서 ‘사진교실’에서의 업무경험이 이후 다른 부서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이어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된

다고 전했다. 이에 추후에는 아태교육원의 보다 많은 직원들이 사진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다면 실무자 개인의 전문성 향상 뿐 아니라 소수의 인원으로 사진교실을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여러 부서 직원이 함께 사진교실을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처럼 보다 많은 인원이 협력하여 사진교실의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한다면 사진교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2: 조금 저는 내부 기관 입장에서는 1회만 하고 있지만 1년에 2회 정도 해서, 아니면 더 많이 해서 여기에 ... 직원들이 많이 다양한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협력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아 우리가 유네스코 기관들과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예산이 문제죠.

연구자 : 힘든 업무긴 하지만 실무자로서 전문성을 쌓는데 도움이 되나요

관계자2 : 네 국제협력 전문성을 쌓는다는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같이 아태지역을 위해서 활동해야하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중략)..네 지금은.. 한명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서너 명이 안가면 못하거든요. 학생들도 데려가야 해서요. 그렇게 서너 명이 좀. 한 부서에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부서에 메인이 있으면 타 부서에서 같이 가서 그걸 하면 뭐, 협력하는 것도 보고, 지역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저는 좀. 예. 많이.. 그냥 사람들이, '사진교실? 그냥 놀러가는 프로그램이네' 하는데, 안 가본 사람들은 그러는데, '넌 가서 뭐해' 그러는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폐인으로 잠도 못



자고.. 행정도 진짜 복잡하거든요...(중략)...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지역 이해하는 거, 향후 그 국가하고 업무를 할 때, 국가위원회 분들이 유네스코 그래도 리애송 오피스(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교육부 아니면 외교부 안에 있거든요. 그걸 알면 다른 업무를 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캄보디아의 한 해외관계자는 현지 관계자들의 국제사업 관련 실무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렸다. 캄보디아에서 진행되는 사진교실이라는 국제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학교 차원과 교육부 차원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관계자4 : it's really very impressive for me and also for the Cambodian students too. They have learned a lot. Also my staff. They learned how to organize and the way that they do foreign events happened in Cambodia. So it's good in terms of school level it is very good for the ministry level,

## 6) 해외관계자: 사진교실, APCEIU에 대한 무한한 지지

면담에 응했던 모든 해외관계자는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의 재유치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다. 캄보디아의 한 관계자는 프놈펜(Phnom Penh)을 문화적 다양성의 중심지로 소개하면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사진교실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알렸다.

관계자4 : I would like to take one more photo Class in Phnom Penh, you know, in Phnom Penh, it's central of the diversity of a culture too. ... **And we always fulfill the request from the APCEIU, we will never reject.** Also my house with my ministry we never reject. **my request is one.** if we have time, and if time allows us we can do another one photo class in Phnom Penh with teacher and student.

또한, 인도네시아의 한 관계자는 사진교실 참가국과 참가자를 늘릴 것을 제안하며, 비용분담을 제안하였다.

관계자5 : It will be fun to have more than two countries in one workshop. More things to learn, more diversities to see, more cultural experiences to have and of course more understanding to gain! **I think it's okay to charge workshop fee to the participants, so that you wouldn't have to bear all the expenses.**

## V.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1. 연구결과

사진을 통해 접하는 이미지는 눈으로 확인되는 형상(形相)과 마음으로 떠올리는 심상(心象)으로 나누어진다.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사진교실은 형상과 심상을 함께 만들어가며 공감과 성찰을 이끌어내고 인식의 확장을 추구하는 교육적인 과정이다.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이 연례적으로 17년 동안 진행되어 온 아태교육원의 핵심 교류사업 중 하나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개최하지 못한 현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사진교실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내릴 수 있는 총평은, 이제 사진교실이 제도적 안착단계를 지나 참가자들의 문화적 체험과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에 초점을 맞춘 교육적 목표에 더욱 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직접 참가하지는 않지만 사진교실에서 파생하여 비슷한 유형의 교육프로그램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을 때의 순기능도 상상해볼 수 있다.

연구진은 참여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참가한 학생들, 사진작가들, 국내외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시각에서 앞으로 사진교실이 나아갈 길을 탐색해 볼 기회를 가졌다. 때로는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제안들도 있었지만 예외 없

이 모두 사진교실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을 분류해보면 주로 1) 사진교실의 전반적인 운영체계, 2) 사진교실 참가자들 간의 관계, 3) 개인적인 성장경험에 대한 성찰, 4) 사진 기술과 활용, 5) 사진교실에 대한 기대와 성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생참여자들은 주로 2), 3), 4)에 대한 피드백이 많았고 사진작가들은 1), 4), 5)를, 국내외 관계자들은 1), 5)에 대한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과 아카이브 자료들을 교차시켜 내용 분석을 한 결과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제안이 가능하게 되었다.

## 2. 정책제언

연구참여자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여러 각도에서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을 검토한 바,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주요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을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 협력 차원에서, 외교부와는 공공외교 차원에서의 협력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태교육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시아 문화이해 자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 사진작가들과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의 생활문화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2008년에서 2010년에 걸쳐 <꿈꾸는 부엌>, <꿈

꾸는 교실>, <꿈꾸는 무늬>, <아시아의 봄> 등 다양한 사진전을 열어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들 사진전에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서 촬영한 사진들도 일부 활용되기도 했으나 현지에서 진행된 사진교실 전시작품들을 고스란히 국내에서 다시 전시한 경우는 2015년 러시아 사진교실 전시작품과 2018년 베트남 사진 교실 전시작품 뿐이었다.

아태교육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아시아 문화이해 자료 개발’ 사업의 성공 경험을 복원하여 아태지역 청소년들이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서 촬영한 아시아의 삶과 문화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사진자료들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사진전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20주년 혹은 30주년을 맞이할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사진교실에 참여했던 현지 학생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그동안 사진교실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한데 모아서 선보이는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기념 사진전을 대규모로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태교육원은 2014년 터키 카파도키아에서 열린 제12회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는 외교부에도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외교부는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Group of Friends for Solidarity and Inclusion wit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출범을 주도하는 등 세계시민교육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 외교부에 아태지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교육부, 교육문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이 청소년들의 국제이해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 사회정의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를 위한 국제연대와 협력에 기여하는 공공외교 강화에 크게 일조하고 있음을 각인시켜 외교부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협력사업 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다양성 증진에 치중되어 있는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의 촬영 주제를 인권, 평화, 분쟁, 빈곤, 난민과 같은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제 영역으로 보다 더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촬영 국가와 주제를 매년 즉흥적으로 선정하기 보다는 촬영 국가와 주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틀 안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은 다양한 아태지역의 생활문화를 아시아의 시각으로 소개함으로써 학생과 교사들이 아시아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장을 마련해 왔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가치 확산에도 크게 공헌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은 문화다양성 증진 및 강화를 넘어서 인권, 평화, 전쟁 기억, 불평등, 분쟁 현장 같은 아태지역 상황

에서 다소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와 장소를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주목하고 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소재와 범위를 확대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이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어 보지 못했던 아태지역 삶살이의 아픈 모습들을 오롯이 담아내고 아태지역 이곳저곳의 지역이슈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교실은 아태지역 청소년들에게 아태지역의 인권, 평화, 분쟁, 난민, 빈곤의 현실을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사진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 현장 속에서 짝트고 있는 의미있는 노력과 변화의 모습을 마주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진교실 대상 국가도 아태교육원의 다른 사업들의 대상국 변화 흐름에 맞게 아태지역을 넘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점차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의 소중한 성과물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을 청소년 대상 세계시민교육 장소기반학습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아태교육원이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도 접목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태교육원은 사진교실 실시 후에 학생들이 촬영한 사진과 활동 내용을 담은 사진집을 부정기적으로 발간하고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웹사이트에 활동 내용을 탑재해 왔으나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교사교육가와 사진교실 참가 교사, 학생, 사진작가들의 후속활동에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진교실 활동 보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진집을 새로운 발상으로 개발하여 쓰임새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질적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심도 있게 관찰기록하고 정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 사진교실 운영팀, 참여 사진작가, 사진교실 참가 교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단순한 활동 보고 수준의 사진집이 아닌 실제로 운영된 사진교실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활용도 높은 사진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아태지역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서 학생들이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사진전을 유네스코 총회 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는 13개국 18명의 사진작가들이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세계각지에서 학생들이 학교 가는 길에 직면하는 도전을 그린 ‘학교로의 여행(Journeys to School)’ 사진전을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쳐 유엔과 유네스코 본부를 비롯한 세계각지에서 개최하여 모든 곳의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일깨워주면서 잔잔한 감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아태교육원도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서 지난 17회에 걸쳐 촬영한 사진들을



세계시민교육의 열개로 엮어서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장려하고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사진전을 개최하면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그 밖에도 국내에서는 서울과 그 밖의 주요 도시에서 전시하고 지역 학생들과 교사들이 관람하게끔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을 유네스코 브랜드 가치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대상의 질 높고 모범적인 국제적 세계시민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발전시켜 전세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들과도 협력 체제를 보다 공고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태교육원은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을 운영하면서 임시방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인텔 코리아, DRB동일, 코오롱 스포츠, CJ 나눔재단 등의 민간기업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왔으나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펀드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태교육원은 기업들에게 함께 사는 지구촌 건설을 이념으로 하는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이미지를 창출·강화 할 수 있고, 아태교육원과 공동으로 아태지역의 교육 및 문화지원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구촌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설파하여 민간기업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들과 대대적이고 정교한 협력체제가 구축되면 사진교

실 참가 인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고, 사진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며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반향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중장기적으로는 아태교육원이 주도하는 사진교실의 형식에서 벗어나 협력 상대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비용분담과 더불어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실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관계자는 비용분담과 프로그램 확장을 제안하였다.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사업은 아태교육원과 아태지역 상대국 협력기관들과 공동 사업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아태교육원은 사진교실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했고, 해당국 파트너 기관들은 자국 참가 학생 선발, 사진 촬영 장소 선정, 전시장 섭외, 숙식 관련 내용과 같은 현지에서의 행정적 기술적 업무를 담당해 왔다.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은 아태교육원과 상대국 협력기관간의 공동 사업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실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상대국 협력기관은 지원 기능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아태교육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지 사진작가도 학생 사진 촬영지도, 사진 선별 작업 그리고 사진전 준비 등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했으나 한국 사진작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할이 크지 않았다.

이제 아태교육원은 상대국에 보다 많은 주도권을 주어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 각 상대국의 지역적 맥락을 더 반영하고, 그들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주면서도 동등한 파트너십 속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협력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부 지원해서 그들이 직접 진행하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사업을 양자간 사업에서 다자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신중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취지에 부합하게 학생들이 촬영한 사진을 여유 있게 감상하고 학생들 간에, 학생과 사진작가들 간에, 학생과 교사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현지에서 사진 전시로 종결되는 것도 좋지만, 사진을 함께 감상하며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며 관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진교실 프로그램 내에서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 워크숍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보다 더 사진교실의 중핵적 부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워크숍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보다 면밀한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보다 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 활동 중심형 세계시민교육 워크숍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학생들이 생생한 생활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현지 학교 방문, 홈스테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진교실에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8명이나 함께 하는 교사들이 단순히 학생 인솔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사진교실의 핵심 참가자이자 운영자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교사들도 학생들과 동행하게 해서 학생-교사가 함께하는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모델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덟째,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사진교실에 참여하는 한국 학생 중에 절반은 반드시 다문화가정 학생, 낙도 학생을 포함하여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에 기회를 부여하고, 점진적으로는 사진교실 개최국의 현지 학생들도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서의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참여 확대는 교육소외계층에 국제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이 추구하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도 한 걸음 다가서는 조치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을 사진교실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종 관련 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 금정구청, 수성구청, CJ 나눔재단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을 사진교실에 참여시켰던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기관과 단체들에서 이러한 노

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참여 이후에도 교류를 지속하고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진교실 참가 학생들, 사진작가, 참여 교사들을 비롯한 사진교실 참여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을 뛰어넘어 사진교실의 성과를 널리 공유시키고 순환시키며 참가자들 간의 의미 있는 교류를 유지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태교육원 주최의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워크숍에 참가했던 전세계 청년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청년 네트워크(Global Citizenship Education Youth Network)’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는 것도 사진교실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아태교육원이 사진교실 참가자들이 사진교실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온라인 사진전 혹은 오프라인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거나 세계시민교육 관점이 스며들어 있는 e-book 형태 사진집 발간을 지원하거나 참가자의 연말 정기모임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온오프라인 상에서 모이게 될 것이고 SNS등을 통해서도 사진교실이 국내외에 상시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다. 기존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웹사이트상의 온라인 아카이브도 확대 개편하여 참가자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네트워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사진교실 성과물을 가지고 사진전을 개최할 때 외국 참가자를 일부 초청해서 그들에게 사진 큐레이터 역할을 하게 한다면 외국 참가자들과도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진교실에 참가했던 학생들 중에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학생이 있다면 ‘APCEIU 세계시민교육 사진작가’로 위촉하는 것도 네트워크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아태교육원이 민간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진교실 참가 사진작가와 학생들에게 사진과 관련된 세계시민교육 사업 제안서를 받아 후속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네트워크 강화와 더불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시민교육 이니셔티브를 밀받침하는 지원책이 될 것이다.

열째, 사진교육은 기능적 사진기술교육이 선행된 후 예술 감성 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의 취지 설명을 병행하며 실행할 것이 권고되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같이 교육적 목표(예컨대 관찰, 소통, 놀이, 수용, 이해 등)를 정해 달성하도록 노력한다면 전시를 위한 결과물 생산에만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사진교육의 목표를 1) 체험을 통한 사진의 이해, 2) 소통을 통한 문화차이의 이해, 3) 창의적 표현을 통한 심미안 향상, 4) 사진을 통한 세계시민성 연계 가능성 모색 등으로 나누어 일별 주제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진행과정에서 사진을 찍는 시간 외에 시각정보화교육 또는 미디어정보교육을 실행해서, 참여학생

들이 사진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세계시민교육의 중심주제들의 관점에서 결과물을 조망할 수 있도록 주제중심적 접근과 이에 적합한 장소를 사전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국가의 유네스코위원회 등에서 사진교실을 운영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진활용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한다면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서 파생된 여러 형태의 사진교육이 다채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진교실이 세계시민교육의 차원에서 국내외의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예컨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네스코 협동학교,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소속 학교, 국내외 소재의 국제학교 등에서 사진교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다른 형태의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 세계시민성을 주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협업적 지식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교실이 참가자들만의 관심사로 분절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보다 세계시민교육을 화두로 모일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면 문화교류 이상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Andreotti, V.(2006). Soft versus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A Development Education Review*, 3, 40-51.
- APCEIU.(2016-1).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 선생님들의 세계시민교육 이야기 나눔.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 APCEIU.(2016-2). 세계시민교육, 선생님들의 이야기: 2016년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실천사례집.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 APCEIU.(2017). 세계시민교육, 학교의 미래를 그리다: 2017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들의 이야기 나눔.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 Banks, J. A.(2017). Failed citizenship and transformative civic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er*, 46(7), 366-377.
- Creswell, John W.(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Mason, Jennifer.(1996). *Qualitative Researching*. 김두섭 역(1999).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 Pak, S. Y. (2013).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oals and challenges in the new millennium*. Seoul: APCEIU.



- UNESCO.(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 Yin, Robert K.(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4th ed). 신경식, 서아영 역. (2011).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 강혜라·홍영준(2015). “해외자원봉사활동이 대학생의 세계시민 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청소년학연구*, 6(2), 1-36.
- 곽영순(2009). *질적연구: 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 김남수(2003).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6(2), 1-31.
- 김다원(2015). “세계시민교육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에서 ‘여행’ 의 교육적 의미 탐색.”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131-162.
- 김정민·김영철(2009). “사진의 교육적 역량 탐색: 벤야민의 관점에서.” *교육인류학연구*, 12(2), 103-135.
- 김진희·김선정(2017). “대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실제와 한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유네스코, 코이카, 월드프렌즈, 월드비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5(1), 45-66.
- 박순용·강보라(2017).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들의 현장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12(1), 49-88.
- 박환보·조혜승(2016).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연구동향 분석.” *교육학연구*, 4(2), 197-227.
- 서홍란·박정란(2014).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

- 성에 관한 기초연구.” 청소년학연구, 21(2), 139-168.
- 손성일(2016). “해외봉사활동이 참여자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사회적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심희정 · 김찬미(2018). “세계시민교육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년부터 2018년 등재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45(3), 5-29.
- 안도현(1998). 사진첩. 서울: 거리문학제.
- 윤선인 · 조윤정(2019). “세계시민교육의 실천방향에 대한 철학적 성찰: 카신의 언어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4), 327-349.
- 이경한(2015).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과 세계지리의 연계성 분석.”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45-75.
- 이승자 · 허현주(2013).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사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표준사진교육과정을 적용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심으로.” 한국사진학회지, 30, 7-21.
- 이은승 · 이성철(2016).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역량 분석.”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0(3), 115-136.
- 이인영 · 이규빈 · 문정민 · 김유연 · 유성상(2019).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 사례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14(2), 139-172.
- 이희용(2013). “융복합 교양교과목 ‘글로벌 시민정신 (Global Citizenship)’ 개발 연구.” 교양교육연구, 7(3), 197-232.
- 정경열(2009). 감성과 논리력을 키워주는 사진교육 PIE. 서울: 웅진리빙하우스.

정재한(2009).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사진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사진문화예술 강사제 도입을 준비하며.”  
Aura, 21, 98-109.

지은림 · 선광식(2007).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39(4), 115-134.

채진원(2013). “세계화시대 대학교육의 이념과 시민교육적 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 39, 6-42.

최승현(2017). “들뢰즈의 실험적 배움론으로 본 세계시민교육.”  
교육철학연구, 39(4), 147-167.

한경구 · 김종훈 · 이규영 · 조대훈(2015).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보도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5. 3. 20). “2015 세계시민교육(GCED) 중앙선도교사 발대식”

- 웹페이지

APCEIU [Website] Retrieved from

[http://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31&wr\\_id=913](http://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31&wr_id=913)

APCEIU [Website] Retrieved from

[http://unesco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31&wr\\_id=500&page=72](http://unesco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31&wr_id=500&page=72)

APCEIU [Website] Retrieved from

<http://www.unescoapceiu.org/board/bbs/board.ph>

p?bo\_table=k31&wr\_id=462&page=0&page=0

APCEIU [Website] Retrieved from

[http://www.unesco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31&wr\\_id=535](http://www.unesco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31&wr_id=535)

UNESCO clearinghouse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ebsite] Retrieved from

<https://gcedclearinghouse.org/ko/news/%E2%80%9Cenvisioning-eternal-wonders-behind-lens%E2%80%9D-14th-eiu-photo-class-siem-reap-cambodia>

YOUTUBE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N9Lh-1UKTYs>

금정신문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www.ib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91>

동아일보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206/59390462/1>

동아일보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202/59265062/1>

한겨레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education.hani.com/arti/PRINT/710470.html>

한겨레 [웹사이트]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67547.html#csidx2ccfd6e085f4b57b7e5c7cfe9b2159e](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67547.html#csidx2ccfd6e085f4b57b7e5c7cfe9b2159e)

## 부록1. 면담질문지(국내외 학생, 국내사진작가, 국내외 관계자)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개선방안 연구: 참가학생 인터뷰>

일시/장소: 2020년 10월/ZOOM

주최기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연구담당자: 박순용 교수님, 채소린, 고석영(연세대학교 교육학과)

### 1. 개인의 경험 및 생각의 변화 : 세계시민성, 다문화감수성 관련

- 방문한 국가 및 참여연도는?
- 사진교실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 참여하기 전 기대와 실제 경험은 어떠한 차이?
- 사진교실 참여 경험: 배운 점, 아쉬웠던 점, 본인의 편견이 깨지고 생각이 변화한 점은?
- 해당국가에 대한 참가 전후 생각/인식의 변화는 어떠한지?

### 2. 프로그램 차원: 사진 관련, 사진 이외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세계시민성 관련

- 사진교실 참여 전, 사진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까?
- 사진교실의 주제가 세계시민성 함양 및 참가국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지?
- 사진(비언어적 활동)을 통해 국제이해교류 활동 할 때 좋았던 점, 배운 점 등은?
- 사진을 통해 국제이해교류 활동 할 때 힘들거나 아쉬웠던 점은?
- 한국, 해당지역 학생들이 사진교실 참가 후 어떠한 변화를 한 것 같은지?(한국, 해당국 학생들이 사진교실에 대한 참여도, 적극성 등이 당시 차이가 났었는지?)
- '사진'을 매개로 한 국제교류활동은 그 교육적 효과가 어떤 것 같은지? 이 경험의 사물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 전시회를 통해 본 동료들의 사진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 사진교실 이후, 사진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 사진 이외에 다른 영상/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국제이해교육 활동에 대한 의견/생각은?
- 본인이 사진교실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 사진 이외 또 어떠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했는지? 양국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 같았는지?
- 사진교실과 관련해서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에 대해 들려주세요.

### 3. 관계적 차원(양국간 학생/교사 등)

- 참여 전, 해외 사람 혹은 외국인과 교류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 참여 전, 한국(국내 학생의 경우, 참가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 당시 누구와 주로 친하게 지냈는지?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인지? 초판성은 어떻게 하였는지?
- 한국 팀원/교사들과의 소통은 어땠는지? 관계형성 시 좋았던 점, 어려운 점은 무엇?
- 해당 참가국 팀원/교사들과의 소통은 어땠는지? 관계형성 시 좋았던 점, 어려운 점은 무엇?
- 프로그램 참여하는 동안 관계에서 오는 마찰, 갈등경험이 있었는지? 주요원인은 무엇?
- 프로그램 이후 국내외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는지?
- 양국 참여 학생 모두 세계시민성 함양하기위해서 관계/교류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
- 참가국을 양자(두 국가)가 아닌 다자(여러 국가)로 하면 어떤 것 같은지?

### 4. 주최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업/소통 관련

- 한국: 사진작가 및 유네스코 관계자들과의 소통은 어땠는지?
- 한국: 주최 측의 프로그램 운영, 관리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등이 있었다면 무엇?
- 현지 기관 및 담당자와의 소통, 교류 시 어려움 점이 있었다면 무엇?

UNESCO Photo Class Interview Questionnaire

**1. Changes in personal experiences and thoughts**

- What was the country you visited and the year of participation?
- What motivated you to participate in the photography class?
- What was the difference between expectations and actual experiences in the EIU Photo class participation?
- What do you think you learned from the program? (the thing you learned, the thing you were not satisfied with ... )
- How did your thoughts/perceptions about Korea and Koreans changed?

**2. Program level**

- Before participating in the EIU Photo Class, were you interested in photography?
- Did the topic of the photo class seem to help cultivate global citizenship and understand the participating countries?
- What did you like and learn during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xchange activities through photos (non-verbal activities)?
- Things that were difficult or you had problem with during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xchange activities through photos
- What changes do you think Korean and local students have made after participating in the photo class?
- What do you think is the educational effect of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through photography? How has this experience changed your worldview and values? (Interest,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the program)
- What did you feel when you saw the photos of colleagues at the exhibition?
- After photo class, how do you define the meaning of photos?
- What are your opinions and thoughts o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activities using video/media media other than photos?
  
- if you were in charge of EIU Photo Class, how would you change it?
- What kind of cultural exchange program did you have other than photos? Was it an activity that helped us understand the two countries?
- Tell us about a special episode in the photo class.

**3. Relational dimensions (students/teachers, etc.)**

- Before participating, had you have any experience with foreigners? What did you think of



them?

- Before participating, how much did you know about Korea?
- Who did you usually get along with in the program? How did you make friends with each other? How was the group organized?
- How was your communication with your Korean team members/teachers? What are the good and difficult aspects of establishing a relationship?
- How was the communication with the team members/teachers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What are the good and difficult things when forming a relationship?
- During you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did you have any experiences of friction or conflict in your relationship? What was the main cause?
- Are you in touch with domestic and foreign friends after the program?
- What do you think are some improvements to strengthen relations/exchange communication in order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in either countries?
- What i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were more than 2 rather than just two?

#### **4. Collaboration/communication with the host organization and related parties**

- How was your communication with photographers and UNESCO officials?
- What were the good points or regrets about the organizer's program operation and management?
- What if there were any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or exchanging with local organizations and managers?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개선방안 연구>  
사진작가 인터뷰 질문지

- 방문했던 참가국, 가장 좋았던 참가국, 기억에 남는 지역은 어디?
- 사진교실 진행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
- 작가들끼리 사전회의를 진행하는지?
- 현지작가 섭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한국 측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
- 사진교실에 학부모참가에 대한 의견은?
- 국가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하고 관계가 불편한 나라, 일본이나 중국 등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사진교실 주 테마나 이런 것들을, 매번 하나씩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반적 사진교실 테마로 가져가는게 좋을지?
- 사진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만들어서 어떤 과정으로 선별이 되어서 어떠한 또 작가님들의 노력이 가미가 되어서 최종결과가 되는 건지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지?
- 참여하는 학생들 연령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의견은?
- 한국에서 개최를 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주요점으로 두고 진행을 해야 할지?
- 사진교실 참가할 때 카메라를 갖고 와서 할 수 도 있는데, 핸드폰으로 진행하는 건 어떠한지?
- 사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 현재 네트워킹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 학생들을 우리(한국) 안의 생소한 장면들에 노출시키는 건 어떠한지? 안전공업단지라든지, 다문화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진이 할 수 있는게 있을까?
- 사진교실을 한국에서 개최한다면?
- 마지막으로 아태에 바라는게 있으시다면?

##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개선방안 연구: 국내 관계자>

일시: 2020년 11월

주최기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연구담당자: 박순용 교수님, 채소린, 고석영(연세대학교 교육학과)

### 1. 관계자 개인의 참여 경험 및 생각의 변화

- 방문한 국가 및 참여연도는?
- 사진교실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준비과정, 현지, 돌아온 이후)
-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가/프로그램/사진 등은 무엇? 그 이유는?
- 사업을 기획 및 실행 할 때 가장 가치, 의미를 두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 (예: 사진의 퀄리티, 프로그램의 주제, 학생들의 흥미/능동적 참여 등)
- 사업특성상 돌발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하면서 본인도 성장, 생각의 변화, 편견 깨지고 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
-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드는 고민이 있다면?
-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적은?, 아쉬웠던 점은 무엇?
- 본인도 아태지역 국가를 방문한 이후 해당국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인식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 사진을 통해 관계자들이 느낀 문화적/주관적 시선의 차이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 문화간 가교로서 사진과 같은 매체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2. 사진교실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들과의 소통 관련

- 매년 사진의 주제, 참가 장소는 어떻게 확정하는지? (그 과정)
- 사진을 통해 양국 참가 학생들의 변화, 성장하는 부분들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 사진 이외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고민이 있다면 무엇?
- 국내/외 참가학생을 선발할 때 기준은? 선발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
- 사진교실의 조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조편성시 참가학생간 소통 원활, 소외학생 방지 등 위하여 고려해야하거나 중요한 것은 무엇?
-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누구? 그 이유는?
- 참가한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나,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등을 경험한 적은 없는지?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였는지?
- 사진(비언어적 활동, 비형식적 교육)을 통해 양국 참가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지?(상호연결성 인식, 상호이해 증진)

- 참가 학생들이 참가하는 기간 동안, 주로 어느 시점, 사건을 전후로 하여 가장 많이 변화하거나 친해지는 것 같은지?
- 참가학생 중 사진이나 프로그램 참여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 양국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사진교실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예, 사진교실의 주제, 사진 이외 프로그램 활동, 함께 하는 시간 등)
- 사진교실을 통해 참가학생들의 세계시민성 함양 관련하여 교육적 효과가 높았다고 생각했던 특정 참가국, 활동, 과정은 무엇이 있었는지?
- 사진교실 참가 이후에 아태교육원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 양국 참여 학생 모두 세계시민성 함양하기위해서 관계/교류적 소통 강화를 위한 사진교실의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참가학생들의 네트워크 (동문회) 구성 및 운영 가능성은?
- 페이스북 등을 통해 사진 공유나 기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 참가학생들의 진로와 사진교실 경험의 연관성은?

**3. 협업 강화 관련(국내외 교사, 해외기관 관계자, 사진작가)**

- 양국 학생들과 소통은 어떠했는지? 어려웠던 점은?
- 한국 교사들과의 소통은 어떠했는지? 어려웠던 점은?
- 해외 교사/관계자들과의 소통은 어떠했는지? 어려웠던 점은?
- 사진작가를 섭외할 때 '사진교실' 사진작가로서의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사진작가와 양국 학생들이 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같은지?( 예: 사진에 대한 흥미,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는 시간 필요 등)
- 사진작가들의 역할에 대해 어떤 점을 확대 또는 축소하면 좋을 것 같은 의견이 있는지?
- 교사나 학부모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진 전시회를 물리적인 공간 외에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

UNESCO Photo Class Interview Questionnaire for officials

**1. Changes in individual participation experiences and thoughts**

- The country you visited and the year of participation?
- How and why did you start the photo class?
- What is the most memorable episode? (Preparation process, on-site, after return)
- What is the most memorable country/program/picture? The reason is that?
- What is the most valuable and meaningful part when planning a business? (Example: the quality of the picture, the theme of the program, the interests/active participation of students, etc.)
- There will be many unexpected situations due to the nature of the business. Are there any episodes about this?
- What if there are changes, such as growth, change of thoughts, breaking prejudice, etc. as you progress and participate in the project?
- Do you have any concerns while continuing the business?
- Have you ever been the most rewarding while doing this?, What did you regret?
- Have you ever experienced a change in your thoughts/perceptions about people or countries in Asia-Pacific region after visiting Asia-Pacific countries?

**2. Photography class program and communication with students**

- How do you determine the subject and venue of the photo every year? (The process)
- Have you ever witnessed the changes and growth of participating students from both countries through photos?
- How do you organize programs other than pictures? What if you have any concerns about this?
- What are the criteria for selec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ents? What are the difficulties in the selection process?
- How do you organize the photo class? What is important or important to consider in order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participating students and prevent underprivileged students during group formation?
- Who is the most memorable student? The reason is that?
- Have you ever experienced conflict between participating students or difficulty in communication (due to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How did you cope with this?
- Does it seem to help participants in both countries understand and get to know each other through photos (non-verbal activities, informal education)?
- During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articipating students participate, mainly at what time point, before and after the event, do you most likely change or become friends?

-How did you cope with participating students who passively participated in photography or program participation?

-What do you think is important for students from both countr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hotography class? (e.g., the subject of the photography class, non-photography program activities, time together, etc.)

-What specific participating countries, activities, and courses were thought to have had high educational effects in relation to cultivating global citizenship of participating students through the photo class?

-After participating in the photo class, are there any students who continue to exchange with the Asia Pacific Education Center?

-What do you think is the improvement of the photo class for strengthening relationship/exchange communication in order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of both countries?

**3. Regarding strengthening cooperation (domestic and foreign teachers, overseas institution officials, photographers)**

-How was communication with students from both countries? What was the difficulty?

-How was communication with Korean teachers? What was the difficulty?

-How was the communication with overseas teachers/personnel? What was the difficulty?

-When recruiting a photographer,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virtue of being a 'photo class' photographer?

-What are the important thing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photographers and students from both countries? (Ex: interest in photography, need for time to get to know each other, etc.)

## 부록2. 연구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국문/영문양식)

### 연구참여자 설명문

연구과제명 :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성명/소속): 박순용(연세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전화번호: 02-2123-3182

본 연구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문과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설명문에서는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귀하가 이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에 참가했던 학생, 사진작가, 주최 및 협력기관 관계자들의 심층면담(인터뷰)을 통하여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참가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수집하여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이 걸어온 역사와 기록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이 미래의 세계시민교육에 일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 2. 연구 참여 대상

참가학생(6명 내외), 사진작가(3-4명 내외), 주최 및 협력기관 관계자(3-4명 내외)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에 맞는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합니다.

#### 3. 연구방법

연구참여자들과의 면담은 개별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각의 연구참여자들과 총 1회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상황에 따라 Zoom 등을 활용한 온라인 인터뷰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각 인터뷰 당 대략적인 소요 시간은 학생의 경우 60분 내외, 사진작가 및 주최/협력기관의 경우 90분 내외입니다. 면담내용 녹음은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하에 주요내용을 문서화할 예정이며, 연구자는 현장노트를 작성하여 핵심 아이디어와 일화를 기록하여 이후 연구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4. 연구 참여 도중 중단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책임자 박순홍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5.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이름, 나이,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입니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연구로부터 얻어진 연구참여자에 관한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실 사물함에 보관되며 박순홍, 채소린, 고석영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학문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를 포함하여 인터뷰 내용 중 거론되는 사람들의 소속 및 이름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귀하는 어떠한 불이익 없이 인터뷰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연구종료 즉시 폐기될 예정입니다. 만약 귀하가 참여 중지 및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될 것입니다.

#### 6.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연구보조원 성명: 채소린(연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전화번호: 010-2616-4308

연구보조원 성명: 고석영(연세대 교육학과 석사과정) 전화번호: 010-4171-8184



## Lay Summary of the Research

**Name of research : A study on the EIU Photo Class Improvement Plan**

**Chief of research : Pak, Soon yong(Prof. in Yonsei University)**

**Contact: 02-2123-3182**

This is a research on 'A study on the EIU Photo Class Improvement Plan'. You should carefully read the statement and consent form before deciding whether to participate in this research. This lay summary of the research explains why this research is being conducted and what it is doing. It also explains that you can stop participating in this research at any time.

###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This study is designed to collect the experiences and voices of the participants of the 'EIU(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Photo Class'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students, photographers, organizers and partners who participated in the clas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race the history and records of the Photo Class', and through this, make a policy proposal for the 'EIU Photo Class' to contribute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future.

### 2. Participants

Participants are grouped as: students (about 6 people), photographers (about 3-4 people), organizers and partners (about 3-4 people). Interview questionnaire suitable for each group is formed to conduct in-depth interviews.

### 3. Research Method

Interviews will be conducted individually and only once with each participants.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online interviews may be conducted on ZOOM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approximate time required for each interview is about 60 minutes for students and 90 minutes for photographers and organizers/cooperators. The recording of the interview contents will be documented with the prior consen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 researcher will write a field note to record key ideas and anecdotes and use it as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analysis.

#### **4. Withdrawal from participation**

You can quit at any time midway after you have been in the study. If you want to stop participating in the research, please tell the researcher or research director immediately.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please contact Park Soon-Yong, Director of Research.

#### **5. Personal Information and Confidentiality**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rom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s gender, name, age, mobile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The collected information is properly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research participants obtained from the research is kept in a confidential lab locker, and only Soon-Yong Pak, So-lin Chai, Suk-Yung Go can access it. We will do our best to ensure the confidentiality of all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research.

The interview content will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academic purposes and will not be leaked to the outside. We will also ensure the anonymity of the affiliations and names of the people mentioned in the interview, including the interviewees.

You may discontinue participation in the interview without any penalty, and may refuse to respond to the researcher's questions.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possible side effects or risk factors while participating in the study, please contact your researcher immediately.

When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in this study is published to journals or conference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your name will not be used. However, if required by law, your personal information may be provided.

Your signing of this agreement will be deemed your consent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research pla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ill be destroyed immediately upon completion of the research. If you say you want to stop participating or withdraw from your participation, it will be destroyed immediately.

#### **6. Contact**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study or have problems in the middle of the study, please feel free to contact the following research personnel:

RA : Chai, So-lin(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Ph.) caisulin@naver.com  
RA : Go, Suk-yung(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Master's Program)  
gsy930513@gmail.com



## Research Consent Form

**Title of the Research : A study on the EIU Photo Class Improvement Plan**

Please read the information below and mark it in the box if you fully understand the content.

- I have read the lay summary and I fully understand the content.
- I received detailed explanations, asked questions, and received appropriate answers.
- I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is study.
- I may refuse or stop participating in the study at any time during the study. Also, I know that there will be no disadvantages to me even if I stop participating in this research.
- I am free to request participation in the research and receive a copy of the explanation (and written consent form).

**Name of the participant**                      **Signature**                      **Date(YY/MM/DD)**

---

**Name of legal representative (if applicable)**                      **Signature**                      **Date(YY/MM/DD)**

---

**(relationship to the participant)**                      )

---

**Name of the Researcher**                      **Signature**                      **Date(YY/MM/DD)**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www.unescoapceiu.org](http://www.unescoapceiu.org)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개선 방안 연구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20

ISBN 979-11-87819-37-0 93370

발행일 : 2020년 12월 4일

연구진 : 박순용, 김종훈, 채소린, 고석영

발행처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소 : (08289)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전화 : 02-774-3956

팩스 : 02-774-3957

인쇄처 : 코데코 (02-393-1472)

